

འདྲིམ་པ་ལྟོགས་པའི་འཇུག་པའི་ལུགས་ལྟུང་།

생활과 수행

365

직메폰축 린포체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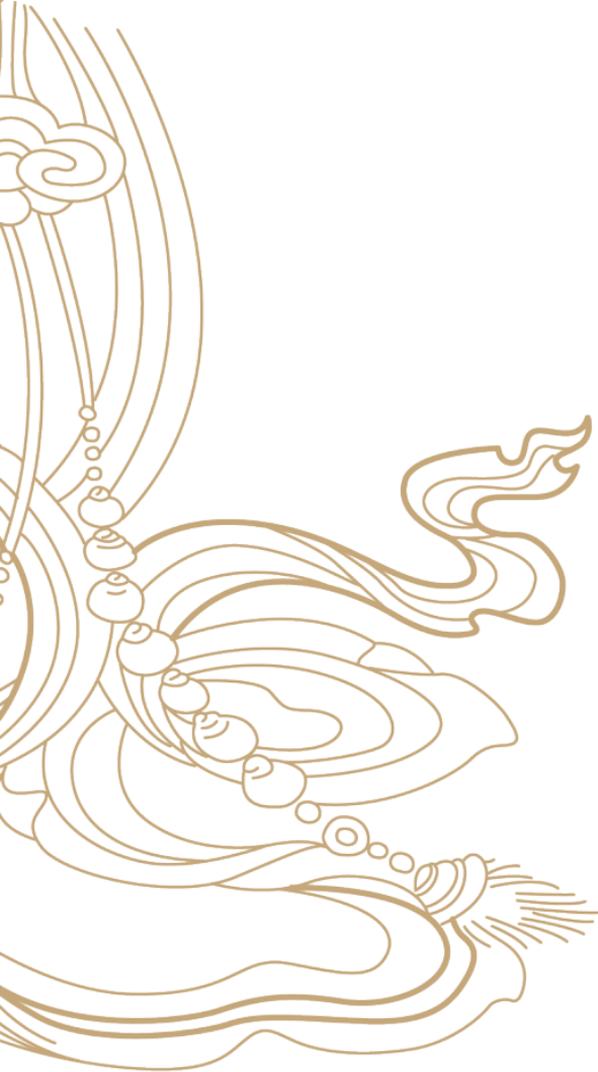
소달지 켄포 - 티베트어를 중국어로 번역
2019년

생활과 수행

직메푼촉 린포체의 가르침

소달지 켄포 - 티베트어를 중국어로 번역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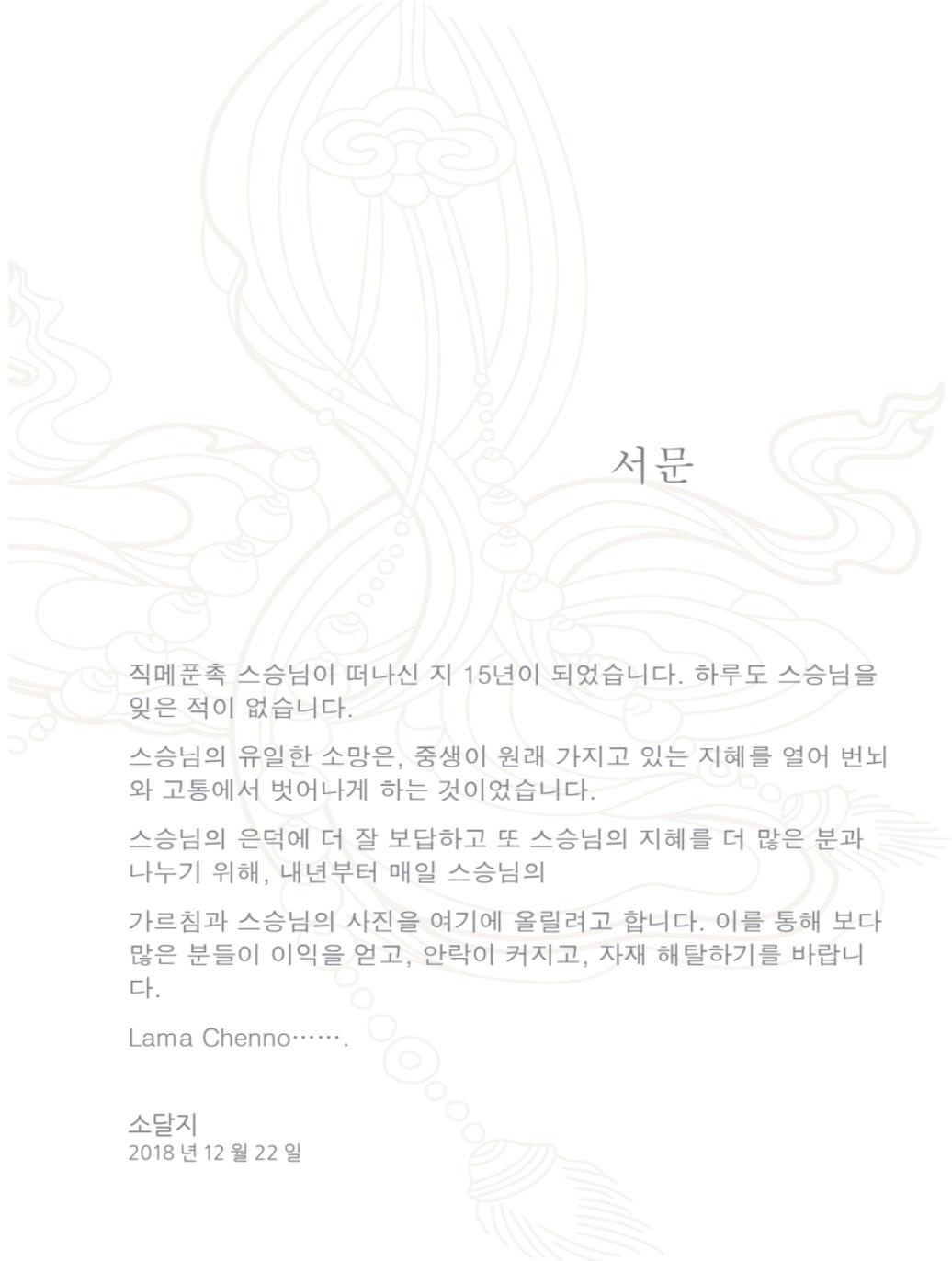




목록

서문	000
1 월	001
2 월	032
3 월	060
4 월	092
5 월	122
6 월	153
7 월	183
8 월	215
9 월	246
10 월	276
11 월	307
12 월	337





서문

직메꾼축 스승님이 떠나신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스승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스승님의 유일한 소망은,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열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은덕에 더 잘 보답하고 또 스승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내년부터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의 사진을 여기에 올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익을 얻고, 안락이 커지고, 자재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Lama Chenno…….

소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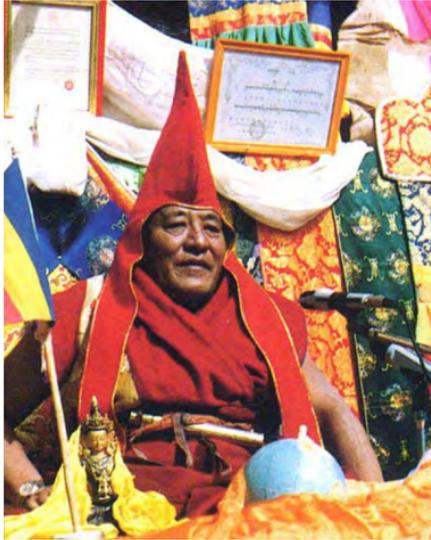
2018년 12월 22일





2019년 1월 1일

자신의 길을 잃지 마세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방해하지 마세요.



2019년 1월 2일

불법을 배울 때 공경심과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부처님과 고승대덕의 가르침을 중시하지 않게 되어, 불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배움을 통해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잘 사유하지 못하고 깊은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3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마 중 하나인 '천마(天魔)'가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마왕 파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마왕은 우리 마음의 무명과 혼란입니다.



2019년 1월 4일

현종이든 밀종이든, 그 핵심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악마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2019년 1월 5일

모든 사람과 일체 사물에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을 일으키는 것의 본질을 자세히 관찰하면, 물거품처럼 실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탐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2019년 1월 6일

우리가 갖는 각각의 생각은 진실이며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하면 순간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생긴 동시에 바로 사라집니다. 본질은 허공처럼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19년 1월 7일

범부는 무명에 가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한다고 여기고, 끊임 없이 집착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는 완전히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2019년 1월 8일

탐욕은 공(空)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운전하는 법을 알고, 실제 운전을 해보지 않는다면 진정 운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겠죠.



2019년 1월 9일

불교에서 깨닫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중관의 이치로 추론하고 관찰해도 되고, 마하무트라나 족첸을 통해 스승의 가호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든, 일체 법은 본질적으로 공성이며 이 공성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어떤 원수이든, 또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해하든 우리는 성내면 안 됩니다. 원수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오하고 보복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마음속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스승과 삼보의 가호로 그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빨리 벗어나 안락을 얻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이 특별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마치 자신의 복보를 빼앗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그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그 사람의 복보입니다. 아무리 질투해도 당신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9년 1월 12일

현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면 자신의 명성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지면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망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원만한 공덕을 갖더라도 당신의 명성에 털끝만큼의 영향도 없을 것이고, 반대로 모두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로부터 당신이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복보를 받을 때 질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3일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 재능 등 모든 것이 단지 전생의 선행의 과보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에 집착해서 자만하면 기존의 선근은 소멸될 것이고 공덕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오만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지혜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 이런 것들은 본래 언급할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때 혹은 특정 범위 내에서 당신의 재능이나 외모 등이 특출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당신보다 천배 만배 뛰어난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금 양보하여, 당신의 공덕이 일반인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이더라도, 성자 중에는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공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덕은 단지 인연이 모여 생긴 것일 뿐 아주 무상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그 당시 저의 스승이신 토가여의보 곁에는 지혜가 뛰어나고 계율을 엄격히 지킨 수행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열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지혜도 깊지 않은 사람이 지금은 덕망 높은 고승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가 지혜와 복덕을 가졌더라도 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19년 1월 16일

우리가 남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神通력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공덕을 확실히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거지가 보기에는 불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내재된 공덕이 바다처럼 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를 무시하거나 오만하면 안 됩니다.



2019년 1월 17일

업장이 무거운 범부로서 누구든 번뇌와 공덕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대소변과 묘약이 혼합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때문에 득의양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본인에게 공덕이 조금 있다고 오만해진다면, 그럼 꿰어오르는 번뇌에는 왜 수치심을 갖지 않나요?



2019년 1월 18일

중둔빠 존자님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티샤 존자님도 “자신의 학문이 깊을수록 남에게 더 겸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승한 공덕을 갖추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대 성취자들도 일체 중생을 차별 없이 겸손하게 대하는데, 번뇌로 가득 찬 우리 같은 범부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하무인일까요?



2019년 1월 19일

사람이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은 대부분 마왕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마치 길들여진 준마에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처럼
남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019년 1월 20일

일체 만법은 본질적으로는 허공처럼 탐욕이나 분노 등 어떤 번뇌도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환상이나 꿈처럼 드러나 보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제법은 본질상 실체가 없어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공이며, 표면적으로는 윤회 중인 모든 것이 환상이며 여덟 개 비유로 대하는 것이 바로 대중관 혹은 대원만의 관점입니다. 또한 문수보살의 대비심에서 생겨난 '지혜의 보검'의 의미입니다.



2019년 1월 22일

세 개의 축을 가진 선반의 한 축이 부러지면 다른 두 축으로만은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무명과 어리석음을 잘라 버리면 마궁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어떤 마귀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이 세상에서, 분별심은 우리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탐욕을 예로 들면, 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전혀 사랑스러운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과 지금 싫어하는 여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분별심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분별심이 많은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솜털처럼 이리저리 떠돕니다. 오늘은 이 여자를 쫓고, 내일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아름다운 여인을 얻지만 결국에는 또 너무 평범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름다움에 진정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면 사람의 생각은 전과 후가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이 좋아하고 또 전 인류가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한 여인이 낯이 나갈 정도로 매혹적이지만 다른 남자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바로 분별심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25일

더러운 대변을 사람이 보면 구역질이 나지만 개나 돼지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은 단지 중생의 일시적인 분별심에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2019년 1월 26일

세상 만물의 본성은 무상이고 공성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부는 허황된 분별심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고, 고통을 행복으로, 무상한 것을 영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면서 여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27일

일체 분별심은 종이로 만든 칼과 같습니다. 그 본성을 잘 인식하면 이 가짜 칼은 더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분별심에 따라 계속 휘둘린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즐거울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 자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순간도 즐거울 수 없고, 남도 우리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성냄은 마음을 불태우는 맹렬한 불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선근을 남김 없이 파괴합니다. 이 세상에 성내는 것보다 더 큰 과오는 없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분노를 없애려면 갖은 방법을 다하여 자타평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원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자신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이 우리를 해하는 것은 번뇌에 속박되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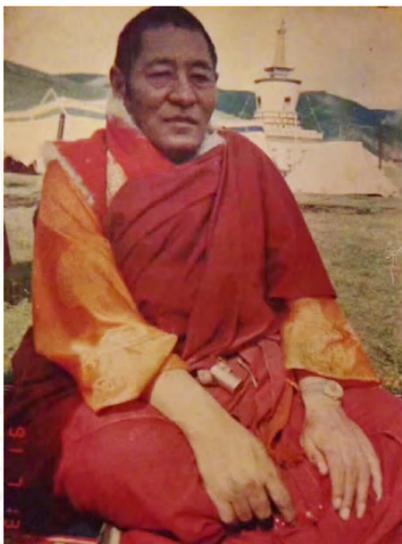
2019년 1월 31일

무명과 어리석음은 우리의 단기, 장기적인 행복을 필연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명에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는 악업을 일으키고 악업은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무명은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고 모든 과오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

선과 악을 올바르게 선택할 줄 모르고,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공성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것 또한 어리석음이며 인과의 연기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 역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끊어 버려야 하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제법의 본성을 모르는 ‘무명’입니다.



2019년 2월 2일

지금은 여러 거짓 설법이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전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더욱이 자신의 분별심에 따라 불법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을 쓰거나 법을 전하는 것은 단지 무명과 어리석음에 따라 하는 것이지 무명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2월 3일

거사나 출가인으로서 악업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업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불교를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늘 계율을 어기고 맹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수행에 열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익을 위해 시주를 받거나 또는 고향에 돌아가 식구들에게 세간법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모두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4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행복은 사실 각자의 업력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근본은 탐진치(貪瞋癡)입니다. 용수보살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로 생긴 업은 선업이 아니다. 탐진치 없이 짓는 업이 선업이다.”



2019년 2월 5일

평소의 언행과 생각에 탐진치가 섞여 지은 업은 악업이 되고, 탐진치가 없이 지은 업은 선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방법을 다해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개개인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탐진치를 끊어 버려야만 세간과 출세간의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6일

모든 병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천인(天人)의 감로처럼,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은 인연 있는 사람이 이를 듣고 또 실천하면 탐진치 번뇌를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7일

우리가 지은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에 따라 생기는 꿈과 같은 고통과 안락도 천양지차입니다. 한 가족 안의 세 식구가 온종일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지내지만 느끼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누구는 저녁에 길한 꿈을 꾸고 몸도 건강하지만, 다른 누구는 계속 악몽을 꾸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아주 아픕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2019년 2월 8일

이런 각양각색의 고통과 안락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외부 환경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9년 2월 9일

만약 우리 마음이 자비심과 믿음으로 가득 찬다면 이번 생은 반드시 행복 할 것이고, 여기에 지혜가 있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악한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악도와 견디기 어려운 고통뿐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석가모니부처님은 불경에서 “마음은 제법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왕이라고 부른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할까요? 마음이 청정한 열반도 만들 수 있고 청정하지 않은 윤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회 중인 모든 것은 청정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고, 열반과 지혜는 청정한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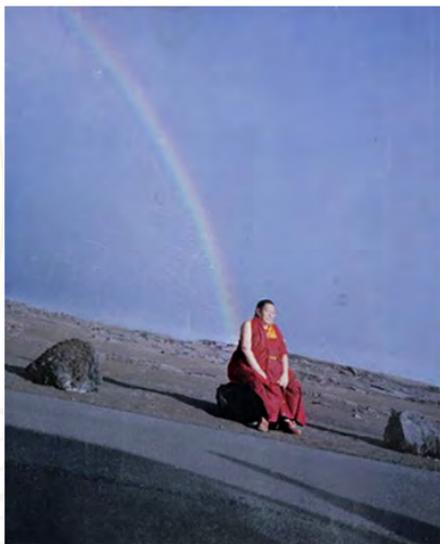
2019년 2월 12일

마음이 윤회, 열반 등 제법을 나타내므로 마음을 선법으로 쓰면 안락은 멀지 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번뇌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장차 반드시 사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19년 2월 13일

남자든 여자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고통의 족쇄에 묶여 영원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중생의 탐욕은 결코 만족되지 못하며 즐길수록 더 커집니다.

남녀 성관계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사람은 비록 그 욕구가 있더라도 억제 못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원하게 되고, 그 욕망은 계속 커져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은 한 번만 즐기면 만족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탐욕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허황된 생각입니다. 소금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듯이 탐욕도 즐기면 즐길수록 더 강렬해질 뿐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9년 2월 15일

탐욕이 만족한 후에 감소한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 이미 수없이 만족을 느꼈으니 지금은 시간이 흘러 탐욕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왜 우리의 탐욕은 계속해서 커질까요?



2019년 2월 16일

탐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은 적고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쁨 후에 우리는 많은 생을 거쳐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17일

수레를 끄는 가축이 길가의 풀 한 줌을 뜯어 먹으려다 끊임 없이 채찍질을 받습니다. 가축이 얻는 것은 겨우 한 줌의 풀이지만 몸과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얻는 것은 적고 이로 인한 고통은 큼니다. 탐욕도 이와 같습니다.



2019년 2월 18일

탐욕이 사람들을 이토록 해치므로, 이를 진정 없애려면 만족한 후 즐기겠다는 방식은 안 됩니다.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권력과 부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즐거운 환경 속에서 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덕을 칭송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들 역시 언젠가는 보통 사람처럼 두려운 죽음의 악마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복보가 살아 있는 동안 다 없어져 가산을 탕진하고 무상함의 온갖 희롱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고락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밥을 지을 때 쌀알이 밥솥에서 오르내리듯이 우리도 인생길에서 때로는 선업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악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고락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붙어 있으면서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이 잤아듭니다.



2019년 2월 20일

미팜 린포체는 “윤회 중의 안락은 번개처럼 짧고 조금도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수승한 불법의 가르침도 들으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툴 린포체는 “영원히 경수리뼈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정진하여 이번 생 이후에는 다시는 업과 번뇌 때문에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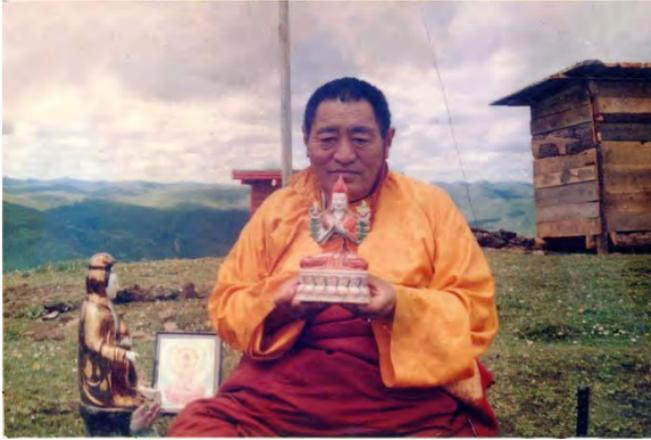
2019년 2월 21일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은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언제일지 생각해보지 않고 일생을 명예와 이익의 추구에만 급급하며 해탈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다가, 무상이 갑자기 닥치면서 죽음의 공포가 순식간에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2019년 2월 22일

저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옆에서 아무리 목이 쉬도록 우리 이름을 부르고 가슴 찢어지게 통곡하고 너무 슬퍼 혼절해도 저승사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떠나기 싫더라도 우리는 인간 세상을 떠나 홀로 처량한 중음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2019년 2월 23일

머지않은 미래에 누구나 꼭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꿈처럼 무상한 인간 세계,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의 모든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재촉해 영원한 안락을 위해 정법을 수행하고, 죽음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24일

세상의 일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예로 들면, 젊을 때 우리 얼굴은 하얀 연꽃처럼 투명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선녀처럼 아름다워도 늙으면 죽은 고목과 같습니다. 이때는 본인도 자기를 보기 싫어하고 마음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을 묵묵히 회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늙은 몸을 보고 싶어할까요? 우리처럼 60살 넘는 노인을 젊은이들은 피하고 싶어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몸도 우리처럼 노쇠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몸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고산이나 평야, 도시나 시골, 큰 사막 등 각양각색의 환경은 보기 아름다운 곳도 있고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결국에는 무상으로 부서집니다. 뽕나무 발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바뀝니다.



2019년 2월 26일

밖에 세계이든 우리 자신이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없거늘, 왜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나요?



2019년 2월 27일

세상 사람 각자의 즐거움과 고통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은 하늘의 번개처럼 모두 무상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잘 모릅니다. 환상 같은 몸과 재물 등에 집착하면서 여러 악업을 짓습니다. 임종할 때에야 갑자기 알게 됩니다.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은 평생 지은 선업과 악업뿐이며,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털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2019년 2월 28일

젊은 사람은 자신의 미모, 재능, 재산 등에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많은 사람보다는 관찰겠지만, 이 세상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 중에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젊을 때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상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일체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인생 중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얼마 후 아주 불쌍한 정도로 추락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어느 순간 부자가 됩니다. 이 세상 일은 그 변화가 아주 큼니다.



2019년 3월 2일

재산의 무상은 하늘의 구름과 같고, 지위의 무상은 산꼭대기의 안개와 같으며, 명성의 무상은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용모, 재능, 지혜 등을 부러워할 때, 이것은 마치 꿈속에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두 세상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성, 재산, 지위와 같은 세간의 것에 대해 너무 강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고통스럽습니다.



2019년 3월 3일

우리가 받는 고통은 지난 날에 지은 악업의 과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2019년 3월 4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당할 때, 친지들이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뿐 고통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얼굴에 얼룩이 없으면 거울에도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악업을 전혀 짓지 않았더라면 이번 생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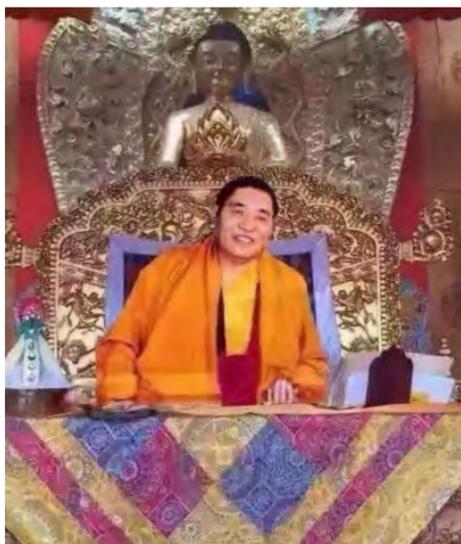
2019년 3월 5일

모든 중생의 고통은 지난날에 지은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는 외부 환경이 우리의 고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업력에 따라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해하는 사람도 업
력의 제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6일

업력이 무르익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이미 지은 고통의 과보는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천인들의 신통력도 업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 깨끗이 없애려면 오직 참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19년 3월 7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대할 때 우리를 해하려
던 원수도 점차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8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길 원한다면 우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 세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본래 찬성하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한 마음에 감화되어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곳곳에 적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제일 먼저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2019년 3월 9일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면 우선 자신이 공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대해야 하고 함부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3월 10일

살면서, 늘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교활하게 보입니다. 얼마간은 그의 일이 성공할 수 있지만 후에는 반드시 쇠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산꼭대기의 물처럼, 처음에는 높은 곳에 있으나 점차 아래로 내려와 다시는 올라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활하게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허위이며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잔꾀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리해 보이지만 사실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작은 이익만 중시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혜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금생과 후세에 끝없는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2019년 3월 12일(1)

어떤 사람들은 여러 욕망이 끝이 없으며, 늘 허황된 것들을 기대하며 밤낮을 초조하게 보내면서 생활의 즐거움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면서 여기서 큰일을 하고 저기서 큰일을 하고…… 늘 궁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망상 속에 있으니 너무 불쌍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세월만 헛되이 낭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2019년 3월 12일(2)

스승이나 고위 관리자는 모두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멀리 앞을 내다보고 인과에 따른 취사 선택을 잘하고, 문제를 처리할 때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이 재무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절대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3월 13일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다면 훗날 자신의 부와 권세가 좋아졌을 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명성, 지위가 높다 해도 사실은 비열한 소인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이전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버리고 권세가 더 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춥니다. 그러다 얼마 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품격입니다. 만약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과 보통의 관계, 심지어 편견을 갖고 있어도 당신을 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가까워지기 위해 오랜 친구를 버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언젠가 당신도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은사 스승에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명망 높은 스승을 만나면 원래의 스승을 버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행동은 아주 진중하지 않습니다.

옛날, 세 명의 승려가 먼 길을 와 켄체 린포체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린포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의 모든 스승을 버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승려는 그들의 이전 스승의 명망이 낮고 린포체는 명망이 높다고 생각했기에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승려는 “비록 린포체가 뛰어난 대덕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스승님이 주신 은혜가 깊은데 법을 구하지 않더라도 옛 스승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린포체는 두 승려에게 “너희가 예전의 스승을 이렇게 대하면, 앞으로 틀림없이 나에게도 이렇게 대할 것이다. 너희 둘은 법을 들을 그릇이 안 되니 법을 전할 수 없다. 다른 승려는 남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라마는 린포체에게서 많은 불법을 전수 받았고 뛰어난 경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마 오셀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랫사람에게는 더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굽실거리거나 아첨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2019년 3월 16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자비심을 가지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알며, 재물과 명성을 탐내지 않는 이야말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2019년 3월 17일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인과의 이치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평소 아무리 정직하고 천성이 자비롭더라도 인과를 중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2019년 3월 18일

재물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고 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일생의 고통이지만 인과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생생세세의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 없고 명성이 없어도 괜찮지만 자신의 인과에 대한 정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19년 3월 19일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내다
봅니다. 공덕의 원만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인(因)입니다.



2019년 3월 20일

누구든지, 재물을 탐하지 말고 늘 무상을 사유하고 인과의 취사선택을 조심스럽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이 더욱 안락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경계에서 스승, 붓다, 본존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참모습에 대해 똑똑히 알고 그들이 함부로 하는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런 망어를 하는 자들은 인과응보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제1세 돈드롭 린포체께서 라롱에 계실 때 그곳에 아공 상계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모자를 쓰고 머리에 육계(肉髻)가 있다고 하고 때로는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녕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때 떨어져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많은 복장품을 가지고 있다며 돈드롭 린포체께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린포체는 “이것은 복장이 아니다. 귀신에 홀렸는가 보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공 상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장품이 진짜라고 우겼을 뿐만 아니라 린포체가 질투해서 그렇게 말했다며 비방했

습니다. 그 후 아공 상계는 또 다른 대성취자를 찾아가 복장품 감정을 요청했지만 역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공 상계는 고집을 부리며 잠양켄체 린포체를 찾아가 또다시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린포체는 선교 방편으로 복장품에 감정 사인을 하면서 파드마삼바바 진언을 천만 번 염송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래야만 감정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언 염송을 천만 번 마친 그는, 명상을 하던 중 갑자기 한 출가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는 마상(魔相)도 깨졌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수행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공 상계는 귀신에 홀렸으나 진언의 힘과 잠양켄체 린포체의 수승한 가호로 위연을 끊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범부의 경지는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밤낮으로 불보살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풍맥명점(風脈明點)으로 인해 겉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금도 환희심을 가지거나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직접 부처님을 만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큰 망언입니다.



2019년 3월 23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부들은 혼자 조용히 있으려 하지 않고 산만하며 시끄러운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변에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흥미진진하게 왈가왈부합니다. 만약 주변에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더욱 흥분합니다.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한쪽에 비켜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상황을 부채질합니다.

용수 보살은 《친우서(親友書)》에서 구경꾼의 과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파동 린포체도 《자아교언(自我教言)》에서 우리가 한곳에 안주해야 하는 이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은 방안에, 마음은 몸에 안주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019년 3월 24일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은 구경하지 말고, 항상 한 곳에 안주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 말할 때조차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누구든 평소에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작은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멋대로 소리질러서는 안 됩니다.



2019년 3월 25일

일반적으로 어떤 고승들은 명예와 이익에 역일까 두려워 절대 개인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고행승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대성취자들은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피하지 않습니다.

당시 파툴 린포체와 공췌 용텐 가초 린포체 두 분은 모두 뛰어난 성취자였고 친분도 두터웠습니다. 공췌 린포체는 스취에 제자가 많았고 못 사람들이 떠받들었으며 말과 재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파툴 린포체는 공췌 린포체의 높은 명성과 많은 자산에 질려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공췌 용텐 가초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고 재산이 풍족한

데 나 같은 고행승이 이곳에 머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으니 나는 이제 떠나겠소”

공쭈 린포체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있어달라고 재삼 부탁했습니다. 파툴 린포체는 농담조로 “그때 우리가 세첸에서 굴메 투톱 남갈님께 불법을 배울 때 우리 둘은 몸을 가릴 옷도 없었고, 집은 누추했으며 늘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했었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우리는 같이 구걸도 하고 탁발도 하던 일 기억하는가? 이제 자네는 유명한 고승이 되었고 내가 자네를 위해 할만한 일이 없는데 여기 머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공쭈 린포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어떤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벗의 말을 듣고 파툴 린포체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은 가난한 승려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또 한 분은 부유한 승려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한 위대한 두 대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두 분은 모두 사심 없이 오로지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 밖에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러러볼 수 있을까요?



2019년 3월 26일

원수로부터 해를 입을 때 지혜가 얇은 사람은 분노가 저절로 생깁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보복 수단을 씁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강조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자신이 예전에 지은 업력에서 비롯된다. 고통의 원인으로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만 탓하고, 업장을 열심히 참회할 줄 모르면 번뇌만 끝없이 증가한다. 담병에 걸린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병이 더 심해졌다면 이때는 자신을 원망해야지 음식에 화풀이하며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2019년 3월 27일

남이나 외부 환경에 화내는 것은 자신의 금생과 후세만 망치게 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리더라도, 병마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2019년 3월 28일

모든 재앙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과거에 지은 죄업이기도 합니다. 이 이치를 통달하면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이나 외부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29일

깊이 사유해 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사실 아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집을 잘라내야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산티데바께서 말씀했습니다. “세간의 모든 재앙, 공포, 고통은 다 아집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집이라는 이 대마왕을 왜 옆에 두고 있는가?”



2019년 3월 30일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분별심은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잡으려면 정념이라는 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찰나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31일

분별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힘은 어떤 경우 상당히 무섭습니다. 마치 집에 성격이 포악한 부인이 온종일 큰 소리를 질러 가족이 불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안락할 수 없습니다. 악처가 가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녀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악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2019년 4월 1일

현재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무병하고 영원히 젊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파툴 린포체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보리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말과 행동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자신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보통 사람에게 고통을 멀리하고 안락을 강하게 추구하는 분별심은 끊임 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수행인은 이런 마음가짐을 끊어버려야 하며 모든 고락을 수행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공성에 안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타교환의 보리심을 수행하면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관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수행하면 천백만 겁의 자량을 쌓을 수 있고, 고통은 바로 공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9년 4월 3일

개개인은 누구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목표가 뒤따르고 더 큰 안락을 추구하려 합니다.

분별심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의 소망을 이루면 이어서 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집을 마련하고 나면 마당을 갖고 싶고 마당을 마련하고 나면 정원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집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이런 마음 상태는 끝이 없습니다. 겐든 초펠 대사도 “모든 중생은, 심지어 개미마저도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분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4월 4일

우리가 선법을 추구하든 의미 없는 사소한 일을 추구하든 최종적으로는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면서 모든 기대와 걱정의 분별심을 끊어 없애고 아무 집착도 없는 경지에 안주할 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9년 4월 5일

처음에 마음이 안주하지 않으면 석가모니 불상을 앞에 놓고 불상의 가슴 부위를 주시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흐려지면 불상의 정수리를 관합니다.

이렇게 관하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기 쉽고 모든 분별심도 사라집니다.



2019년 4월 6일

제가 스취에서 구학할 때 어느 날 특까 린포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의 힘이 매우 사납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 7일만이라도 스승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 상태도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사실, 수승한 수행법을 통해 노력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한 원인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7일

붓다는, 산란한 마음으로 불상을 보아도 미래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내는 마음으로 불상을 보아도, 이 사람은 비록 잠시 악취에 빠지지만 붓다와 인연을 맺었기에 결국은 점차 보리를 터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상의 공덕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친우서(親友書)》에서는 “불상이라면 그 재질이 어떤 것이든,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든 그렇지 않든, 설령 흙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어도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열반에 든 후 누군가가 불상을 만들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혹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회상하면 붓다가 살아 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상호(相好)를 가진 불상을 관하는 것은 금생과 내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물론, 붓다의 지혜의 몸을 관상하고 수행하면 이 공덕은 더 수승합니다)



2019년 4월 9일

탐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절세미인을 보면 그녀의 웃음이 뇌리에 계속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제불보살을 이렇게 '탐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보리도를 터득할 때까지 불보살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대비심으로 가호하며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줍니다.



2019년 4월 10일

어느 불보살에 기도하든 지혜는 늘어납니다. 특히 가호를 받으려면 스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취를 얻으려면 본존에 기도해야 하며,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다끼니(dakini)에 기도하고, 거스르는 연을 없애려면 호법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기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1일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얼마나 악업을 지었는지? 고통은 얼마나 겪었는지?” 사실 조금만 관찰해 보아도 고통은 우리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기 힘든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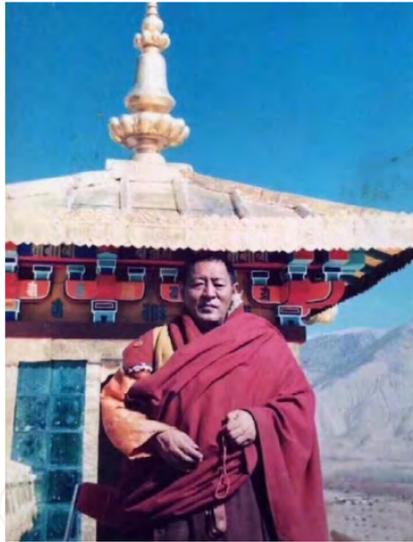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의 경지가 가장 낮은 사람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미타불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며, 일심전력으로 왕생을 발원하고 불법에 따라 행하며 오무간죄, 사법죄를 짓지 않으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이 약속한대로 우리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지금 시대에, 불법을 수행하면서 거스르는 연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보살에 가까운 성자라 할지라도 여러 고난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 신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스승님과 삼보에 기도하면서 외부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가호를 얻어 빠르게 해탈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수행인의 마음속에 일단 정념이 갖추어지면 어떤 것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서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15일

다른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왕코, 좁쌀눈, 난쟁이, 똥똥보……”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똥똥보’라고 늘 부르면 본인은 오백 세 동안 똥똥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후회할 악업을 짓습니다.

저의 근본 스승님 특가 린포체는 늘 별명을 부르는 과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파툴 린포체가 《대원만전행(大圓滿前行)》에서 “어떤 사람이 18개의 동물 머리로 별명을 붙여 다른 사람을 욕했는데, 후에 18개 동물 머리를 한 괴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항상 인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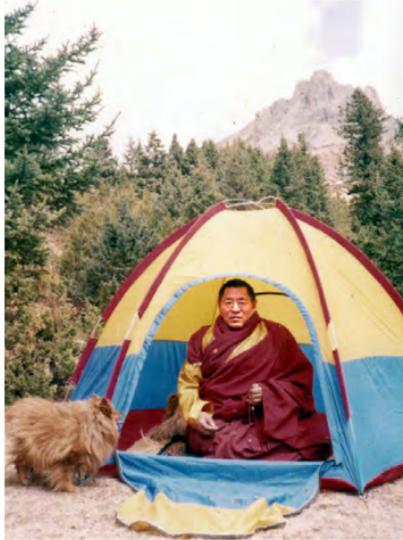
2019년 4월 16일

말을 잘못하여 짓는 업은 짓기가 제일 쉬워, 지혜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성자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이 말할 때와 상황, 경중을 살핀 후 필요한 말만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우리는 평소에 작은 일에도 신중하고 입조심을 잘해야 하며 마음대로 악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업력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욕했다면 즉시 최소 천 번에서 많게는 십만 번 ‘옴반짚사뒤홍’을 염송하세요. 이 주문의 불가사의한 가호로 어떤 무서운 업장도 깨끗이 참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수지(受持)하는 것은 극히 심오한 마음의 도(道)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 다행히도 백삼십 여 분의 뛰어난 스승님들을 따라 수학했으며, 수천수만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강의할 기회와 인연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불교의 모든 법문 중에서 보리심의 가르침이 제일 깊습니다. 실제 보리심을 수행해서 얻는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 법문을 듣는 것 만으로도 해탈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만약 보리심으로 자신의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무량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장수, 풍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 나아가 사회 전반의 갖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1일

세간의 모든 욕망 속에서 누리는 쾌락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생기는 과실과 우환을 모르고 이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밤낮으로 여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불필요한 욕망을 추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인생은 아직 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일생은 아주 짧습니다. 노인 분들은 이에 깊이 동감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23일

한 살부터 열 몇 살까지는 놀기 좋은 아동 시절로 이 시간은 꿈처럼 흐릿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열 몇 살부터 사십 대까지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또한 여기에 가정, 사업에 순조롭지 않은 여러 연으로 선법을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륙십 살 이상이 되면 몸이 옛날과 같지 않아,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힘이 모자랍니다. 그때는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한 인생을 흥청망청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여러 방법을 통해 그 본성을 깨닫고 다시는 욕망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지 마세요!



2019년 4월 24일

우리는 일상 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만법이 꿈과 같다고 사유하면서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탐심이 들거나 화가 날 때는 즉시 이것은 꿈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탐하고 적을 증오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세요. 자기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이것은 꿈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세요.

이렇게 서서히 집착을 끊어 내면 고통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일체 만법의 진상을 명백히 알고 삼세여래의 과위를 얻게 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사람으로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반드시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원만한 행복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금생과 내세에 중생에게 제일 도움 되는 것은 수승한 불법 뿐입니다.



2019년 4월 26일

불법에 꼭 필요한 요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정한 견해, 특히 인과를 믿는 정견입니다. 이 정견이 없으면 삼선도의 안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 즉 삼보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세 일체를 원만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2019년 4월 27일

삼보에 대한 믿음과 인과를 믿는 정견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붓다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악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던 모든 공덕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믿음과 정견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외에 재산, 지위, 명성 등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갈 때 그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29일

우리의 생명은 마치 동틀 때의 별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저는 노인으로서 이를 잘 느낍니다. 젊은이들도 앞날이 아직 길다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인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왕이든 거지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모든 중생이 죽고 나면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윤회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악업을 짓는 것은 아주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2019년 5월 1일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누구나 즐거움을 바라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장구한 안락을 위하여 짧은 이번 생에, 아직 선택권이 우리 손에 있을 때 반드시 정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2일

미팜 린포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은 인(因)이고 내세는 과(果)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선업을 많이 짓지 않는가? 농부가 농사짓는 것처럼, 가을에 수확하려면 봄에 씨를 뿌리고 땅을 잘 갈아줘야 한다.”



2019년 5월 3일

설령 작은 선업이라도 미래 무량한 안락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한 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이 공덕으로 미래에 악도의 근본을 끊고 무량의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불경에서는, 설법을 알리는 소리 소리만 들어도 삼악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직접 불법을 듣는다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선업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번개처럼 짧은 금생의 향락만 탐하고 앞날에 대해 아무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반드시 후회합니다.



2019년 5월 4일

우리 마음이 몸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큰 나무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세월의 풍상으로 희어지고 길을 걸을 때도 옛날처럼 몸을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작은 새가 큰 나무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작은 새와 몸이라는 큰 나무와 함께 모여 있는 이 얻기 어려운 인연을 소중히 하고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5일

인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은 불교도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일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깊은 법을 수행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2019년 5월 6일

여러분은 먼저, 과보는 중생의 업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에는 선업과 악업, 정해진 업과 정해지지 않은 업, 금생에 나타나는 업과 내세에 나타나는 업, 내세에서도 바로 다음 세에 나타나는 업, 여러 세가 지난 후 나타나는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의 업은 시간과 과보 면에서 각각 다릅니다.



2019년 5월 7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업을 지었으니 바로 선한 과보가 이루어지겠지, 오늘 악업을 지었으니 곧 악한 과보를 받겠지’

이것은 인과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인연이 모아질 때 그 과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2019년 5월 8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염불하고, 참선하고, 보시 등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마음은 계속 괴롭고 가정은 화목하지 않으며 사업도 순탄하지 않으니 삼보의 가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인과가 허망하구나!”

이것은 아주 큰 사견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 본인도, 업은 짓는 즉시 바로 무르익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겁불훼멸(百劫不毀滅)’ 즉 백 겁이 지나도 업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9일

혹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붓다가 살아 계실 때는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빨리 얻었고 선악의 과보도 생전에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행을 해도 그렇지 않고 과보도 빨리 성숙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붓다가 살아 계실 때는 중생의 근기가 좋아서 수행하면 빠르게 과위를 얻었습니다. 특히 소승의 과위는 아주 빨리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법 시대로 중생의 근기가 예전보다 훨씬 못하고 업의 과보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업력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위 “천 백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 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꼭 상응한 과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윤회 속의 중생은 무상한 세간법을 원하고 해탈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거품처럼 고통의 바다에서 솟았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2019년 5월 11일

세간법은 마치 번개처럼 찰나이고 무상이어서, 이를 좇는 것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무구광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번잡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 내려놓을 때가 바로 끝이다.”

무시이래 우리는 세간법에 무수한 힘을 쏟았지만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잘 쉬게 할 시간입니다.



2019년 5월 12일

어떤 사람들은 세간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아주 부유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중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간 유류의 재부는 품격이 비열한 사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조금 있다고 절대 오만하지 마세요.



2019년 5월 13일

스승 특까 린포체께서 말씀하시길, “한번은 부의 신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오만하게, 공가(Kongka)라고 불리는 신을 방문했다. 그런데 공가 신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부의 신의 오만함은 바로 사라져 버렸다.”

부의 신이 가진 재산도 별거 아닌데, 우리가 가진 재산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잘 관찰하고, 일체를 꿈과 환상처럼 대하고, 세상을 스크린에 지나가는 영상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이 지나면, 사람과 일과 사물에 가졌던 강렬한 집착이 천천히 사라지며 일체 공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2019년 5월 14일

인생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평상시 의미 없는 일과 연(緣)을 많이 맺지 마세요. 만약 몸으로 각종 세간의 잡다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마음에서는分別심이 끊임없이 생기면 자신에게 아주 순조롭지 않은 연을 가져오게 됩니다.



2019년 5월 15일

지금부터 우리는 무의미한 일들을 버리고, 무량 공덕이 있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불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지식의 비결에 따라 진정으로 정진 수행하면 단 한 달을 수행하더라도 분명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어떤 사람들은 수행의 기회가 많지만 늘 핑계를 대어 늦추다 아주 좋은 연분을 모두 끊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수행하지만 마음은 매일 번뇌 속에서 허송세월합니다. 번뇌라는 도둑이 선법을 전부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수행의 성취를 얻지 못하는 것은 삼보의 가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력이 너무 무겁거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산란한 마음과 번뇌의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안녕할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 내 성취하고 싶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면 거짓 없는 연기의 힘에 의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금생과 내세가 모두 상서롭고 어떤 장애도 겪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19년 5월 18일

지금 시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일을 할 때 함부로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장애를 쉽게 겪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기 쪽에는 자비로 대하고, 적에는 용감하게 대하며 또 타인의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5월 19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혹한 고통은 때로는 한 두 사람의 악행에 의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사람, 특히 용서할 수 없이 흉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즉시 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단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품성이 극히 비열한 중생들은, 온화한 방식으로 도화할 수 없으면 자비심의 전제 하에 불보살이 강력한 방법으로 굴복시킵니다. 이는 세간의 법과도 맞습니다.



2019년 5월 20일

큰 스승이든 작은 스승이든 명성이 크든 작든 그분으로부터 불법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바로 자신의 스승입니다.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옛날 석가모니부처님 시대에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섯 제자 중의 한 대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출리심을 냈습니다. 후에 대덕과 석가모니부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자신의 대덕 스승께 절을 올리고 그다음 석가모니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연신 “네가 맞게 잘했다. 한 분의 스승으로부터 불법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응당 그 스승에게 먼저 절을 올려야 한다”라고 찬탄했습니다.

사실 대덕의 지혜와 공덕이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승의 은덕을 잊지 말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5월 22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경지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자
자의 노력이 아니라 스승의 자비와 가호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러
므로 스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언행에서도 항상 이를 표현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품행이 비열한 일부 사람들은 명성이 자자하고 재산이 많은 스승만 자기의 스승이라 인정하고, 지족소욕하고 법상을 갖춘 스승은, 설령 그에게서 많은 법을 전수받아도 스승이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작은 스승은 비밀로 하고, 큰 스승은 선양하는데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승한 가르침을 받으면 스승의 은덕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복덕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며 스승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스승을 공경하다가 가르침을 얻고 나면 스승을 버립니다. 이는 마치 어떤 환자가 병이 치유되자 의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진정한 수행인이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승의 수승함을 모르니 깨달음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스승에 대한 공경은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팜 린포체는 오셀이라는 시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자는 본래 우둔하고 성질이 거칠며 심지어 스승 앞에서도 무례하고 온순하지도 공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승은 어떤 때 친히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자는 밖에서 막아서며 스승님께서는 병이 엄중하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팜 린포체 본인도 이 시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용가 켄포가 《공덕장(功德藏)》의 해석을 저술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미팜 린포체가 깊은 가르침을 설명하고자 할 때 시자가 들어 왔습니다. 린포체는 당황해하며 켄포에게 “빨리 돌아가게. 오셀이 왔어. 지금은 감히 말할 수가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셀이 스승께 공경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승이 병중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너무 힘을 쏟는 것이 크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스승의 모든 지혜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후에 린포체께서 입적하기 전 오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펠모 켄체를 찾아가거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나중에 오셀이 병이 걸리면 너희들이 잘 돌보거라”

그러므로 표면상의 감언이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스승님에 대해 진정으로 믿음과 공경심, 환희심을 갖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25일

우매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귄 때 종종 상대방의 재산, 지위, 용모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요즘 스승을 찾을 때도 이렇습니다. 스승의 부모가 지위가 있고, 스승의 용모가 장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고대에도, 툴쿠의 용모가 단정하고 장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명성이 높은 부돈 대사는 짜루파의 창시자인데 태어날 때 입과 코가 너무 커서 보기 흉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상심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이렇게 못생겨서 누가 보고 싶어할까?”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는 “부돈바(의역하면 ‘이 아이는 누구나 보고 싶어한다’를 의미),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자라서 당대의 고승이 되었습니다.

겔룩파의 역사 중에도 못생긴 고승대덕이 많았습니다.

사실 배우자를 찾을 때는 용모를 따지는 것도 괜찮지만, 스승을 의지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들의 관찰 방법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내면을 외모보다 중시해야 합니다. 스승의 대비심과 지혜를 자세히 관찰해서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더 믿음만합니다.



2019년 5월 26일

옛날 아티샤 존자는 일생 동안 많은 스승을 모셨습니다. 스승 중에는 공덕이 존자보다 뛰어난 분도 있고, 존자와 비슷한 분, 존자보다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자는 모든 스승께 감사하며 아주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중둔파는 일생에 두 분의 스승만 있었습니다. 한 분은 거사 신분의 스승이었고, 다른 한 분은 아티샤 존자였습니다.

후에 제자 푸도와는 스승 중둔파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처럼 몇 분의 스승만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티샤 존자님처럼 많은 스승을 모시는 게 좋을까요?”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청정심을 잘 수행했다면 모시는 스승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청정심이 부족하고 늘 스승의 과실만 관찰한다면 적을수록 좋다”



2019년 5월 27일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스승을 만나면 금방 달려가 공경하고 공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스승에게 흠이 많다고 생각하며 스승을 떠나고 심지어 곳곳에서 비방합니다. 또 일부는 스승을 떠보기 위해 본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스승을 아무리 많이 따라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일생 중 몇 분의 스승만 따르면 됩니다. 늘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새로운 스승만 찾아 다녀서는 안 됩니다.



2019년 5월 28일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은 모두 각자의 스승과 전승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밀종이든 현종이든 전승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전승은 법맥이 계속되는 것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호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의 정수가 바로 대원만입니다. 그리고 대원만의 전승은 법신 보현왕여래로부터 파드마삼바바, 비말라미뜨라, 지금의 근본스승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를 이어서 스승들은 관경을 주고 가르침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황금같이 순수하고 청정한 전승을 끊임 없이 계승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전승스승으로서, 본인이 직접 관정을 받고 가르침을 전수받은 것 외에 불법의 심오한 비결에 일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승에서 스승을 비방하거나 서언을 깨트린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청정한 전승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우리는 반드시 청정한 전승을 가진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승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승이 없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소위 ‘깨달은 사람’과는 분명 멀리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

어떤 사람들은 지난 생에 대원만과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관련된 가르침을 볼 때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겉으로 는 스승을 의지해야 합니다. 파드마삼바바 존자처럼, 본래 그는 이미 법 신을 증득했지만 일생에 의지하는 스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명성이 아무리 높은 고승대덕이라도 스승을 의지해서 청정한 전 승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2일

이 세상에는 대비심의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성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병이 나고 노쇠하고 번뇌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경지에서는 이런 청정하지 않은 법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성론》에서는 “성자는 모든 고통과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승경장엄론》에서도 “이미 공성을 깨달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꽃밭을 감상하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성자들은 특정 부류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통 사람보다 더 형편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6월 3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전은 “경(經)”이라 하고, 붓다의 열반 이후 역대 고승대덕들이 지은 것은 “논(論)”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전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습니다. 고승대덕과 성자들이 저술한 논전은 붓다가 친히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붓다의 심오한 뜻과 합치한다면 마땅히 붓다의 말씀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논전은 전부 공경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교의 경전에 통달하지 않고 곳곳에서 불법을 설하고 논전을 쓴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6월 5일

불교에서 논전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등의 논전을 쓰는 자는 반드시 등지의 보살이어야 하고, 중등자는 본존을 친히 만나야 하며, 하등자는 오명에 통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저작이 아무리 유려하고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더라도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6월 6일

초지 이상의 보살이 지은 논전에 관해 후학자들의 논쟁이 없을까요?

물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까바 대사, 밀라레빠 존자와 각 낭파, 사까파의 많은 대성취자들이 지은 논전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에 한계가 있는 범부가 성자 보살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려는 것은 까마귀가 대붕으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9년 6월 7일

논전을 쓰려면 누구든지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전하고, 변론하고, 법을 배우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한 이타심이 없이 겉으로 아무리 가장하여 선행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끊고 난 후 법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법을 설해야만 그 공덕이 천인의 감로처럼 일체의 거스르는 연을 없앨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자신은 아무런 실천 경험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여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보드가야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사진에서 알게 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보드가야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중점을 파악해서 말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보드가야에 가봤다면 표현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믿을 수 있고 실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불법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거나 경험이 있다면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앵무새처럼 책에 있는 것만 읽는다면 듣는 사람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파툴 린포체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조금의 체득과 깨달음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2019년 6월 9일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는 천인의 휘어진 활이라 합니다. 하지만 찾으려 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부의 감언이설이 다른 범부들의 생각과 잘 어울린 듯 듣기에 청아하고 황홀케 하지만, 진정으로 수행하여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양’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을 터득한 수행인이 전하는 불법만이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승려들에게 공양할 때는 아무리 적은 재물일지라도 진정한 선지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간사한 자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라라취즈 린포체는 “복덕이 천박한 사람은 재물을 공양하고 싶어도 진정한 복전(福田)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선지식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혜 있고 계율을 잘 지키며 검소하게 사는 출가인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으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함부로 말하며 신통한 척하는 교활한 자들을 오히려 우러러보고 탄복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밀라레파 존자는 제자 레충빠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지혜 있는 자들이 공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매한 자들이 추앙을 많이 받는다. 불법의 참모습은 중시하지 않고 겉모습만 극진히 추앙한다. 그러니, 너는 진정한 선지식을 따르면서 법요의 참모습을 찾아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직금의 시대 현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만 켄포, 툄쿠란 칭호를 걸고 실제로는 불법을 소중히 하지 않고 세간의 각종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중생을 연민하는 사람들은 새벽녘의 별처럼 드뭅니다. 이렇게 허울뿐인 이름만 있는 ‘고승 대덕’들은 걸핏하면 여러 구실을 대며 중생을 속이고 버젓이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관찰하지도 않은 채 다투어 공양하고, 심지어 곳곳에서 그들의 ‘공덕’을 자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말 불교의 비애이며 승중, 신도의 비애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추악한 행위가 불법을 말법의 시기로 몰고 갔으며, 사람들 마음 속에 있던 불교의 숭고한 지위를 파괴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품행이 고상하고 타인을 속이지 않았으며 일을 잘못하면 금방 부끄러운 줄 알았고 즉시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신용을 중요시했으며 맹세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의 각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 친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법을 위반합니다.

옛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인연이 성숙되면 고관대작이든 산야의 촌부든 “물 한 방울처럼 작은 은혜라도 수만 배로 보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충언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칭찬만 들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받으면 감로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똥똥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은 참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태도가 온화하고 겸손하며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사귄 때 실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한이 없는 사이도 오래지 않아 틈이 생기고 불유쾌해지면서 강렬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사이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오늘날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분분합니다. 평화시대라고 하지만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사회 대다수 사람들은 사귄 때 서로 경계하고 서로 계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곳곳에 암투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이런 혼란한 모습들은 파드마삼바바 존자의 예언과 들어맞습니다. “말법시대 남녀노소의 마음에는 모두 악마가 숨어 있다. 이는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행동이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15일

우리는 일을 판단할 때 항상 깨어 있는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의 지혜로 관찰하고 결정하며 그 다음 세간법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 단지 맹목적으로 자기의 사심을 따르거나 남의 분별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신의 독립적인 견해가 거의 없으니 불법을 운용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9년 6월 16일

미팜 린포체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이 방면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득실을 잘 가능한 후 행동으로 옮겨라”

수행자로서 어떤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한편으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삼보의 가호를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스스로도 면밀히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취사선택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남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17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독단적으로 행하고, 일의 중심을 자기로 하며, 자 세히 사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어떤 일이든 성취하기 어렵고 무 량한 후환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고통의 심연에 빠트리게 됩 니다.



2019년 6월 18일

말법 시대의 여러 특징들은 출가인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출가인들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만 있으면 고승대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한 적이 없고 공덕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일 기본적인 불교 상식도 잘 모르고, 늘 오방불을 ‘불쌍한 여래’로 오인하는 농담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동시에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게 합니다. - 직메폰촉 린포체



2019년 6월 19일

불경에 따르면, 옛날 카쉬야파 붓다 시대에 크리키 국왕이 꿈을 꾸었는데 코끼리가 몸은 창박으로 모두 나왔는데 꼬리는 느릿느릿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많은 출가인들이 몸은 비록 출가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간 팔법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큽니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유창한 언어로 아름다운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집에서 정교하고 진귀한 그릇을 보면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절대 포기
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주인에게 그릇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등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인이 호탕하고 대범하며 품격이 고상하다고 아첨합니다. 계속하여 다양한 예를 들면서 자신과 주인의 관계가 가족처럼 친밀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주인이 그릇을 자신에게 선물한다면 나중에 전력으로 주인을 지지할 것이며 심지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를 정말로 믿고 그릇을 선물하면 그는 즉시 방금 한 맹세를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반대로 누군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중간에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할 때는 남에게 아첨하고 칭찬하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즉시 질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교하고 위선적이며 은밀한 수단을 씁니다. 이런 행동은 참 혐오스럽습니다.



2019년 6월 21일

한 출가인이 한번은 탁발하러 나섰습니다. 한 집을 찾아가 생활이 평안한지 물었습니다. 주인이 답하길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답에 출가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이 집에서 때마침 가족이 죽었으면 망자를 위해 경을 읽을 기회가 있고 그러면 재물 공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수행자는 마음이 이토록 사악하니 그는 반드시 해탈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지할수록 더 오만합니다. 그들은 운 좋게 진정한 대덕을 만났을 때도 전혀 공경심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무례하며 안하무인입니다. 겉으로는 삭발하고 출가하여 세속의 작은 집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명예와 이익의 집’을 세우고 지킵니다.



2019년 6월 22일

지금은 진정한 선지식이 극히 적으며, 불법의 이치에 따른 행동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찰은 이미 재가인들의 동네센터로 전락하여 시골벽적인 곳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의 도량으로서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어찌 해탈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한 사찰의 일부 스님들은 법을 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정한 계율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 공양하는 추종자들만 탐욕스럽게 끌어들이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정법이 널리 퍼지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2019년 6월 23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스승을 따른 적이 없고 실제 수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공공연히 타인에게 ‘불법’을 팝니다. 이것은 마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앞길도 모르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을 ‘인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덕처럼 보이는 스님들이 세간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고, 함부로 말을 하며 많은 신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별심으로 불법을 취사선택하고, 불보살의 가르침에 따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틈타 배우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기를 칩니다.



2019년 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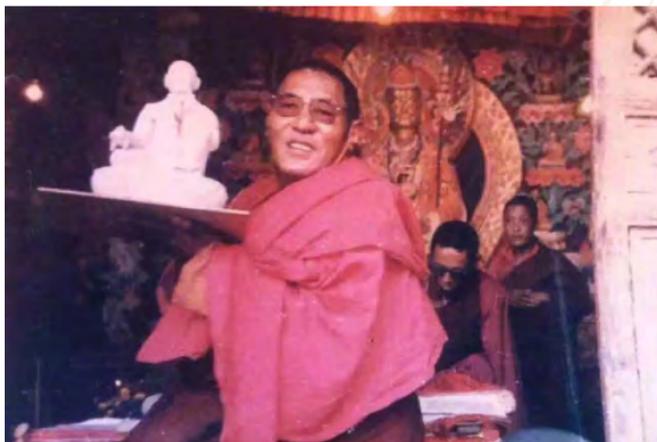
일부 출가인은 사회적으로 명성을 조금 얻으면 오만하고 우쭐거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언제나 정확하며 다른 사람의 비판과 건의를 결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박하고 무지하며 명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주변에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적지 않게 모여듭니다.



2019년 6월 25일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다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헤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
주 드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불법에 따라 수행해 깨닫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스승의 겉모습과 명성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잘못된 습관이 되면, 계율을 위반하는 자를 오히려
아무런 구속이 없는 깨달은 자로 여기고, 명백히 계율을 깨트린 행위를
독특한 선교방편으로 여기며, 음흉하고 간교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
로, 흉악하고 포악한 사람을 '영웅의 기개가 가득한' 사람으로, 악의로 다
른 사람을 해하고 양쪽에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언변이 뛰어나다고 칭찬
하고…….



2019년 6월 26일

선지식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은 그에게 자비와 지혜가 있는가입니다. 즉 자신을 버리고 중생을 위한 대비심이 있는지, 제법의 실상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준을 멀리하고 우매한 견해에 좌지우지됩니다.



2019년 6월 27일

무시이래, 중생을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한 근원은 번뇌입니다. 번뇌는 우리의 금생과 내세에 해를 가져오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번뇌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표면적인 행동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6월 28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의 번뇌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겉으로만 고요한 곳에서 그럴듯하게 불법을 설하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이런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옷차림이 화려하고 풍채가 있어 보이면 그의 경지가 비범하리라 생각하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반면에 수행에 정진하고 계율이 청정하며 지혜가 뛰어난 수행자를 존중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이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2019년 6월 29일

롱첸빠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공덕이 있는 사람이 추앙을 받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며 배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공경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말법 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우매하고 천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때 오만심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더 커지고 결국은 타인을 해하고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

사실, 자신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본인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과한 칭찬을 함부로 믿지 말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

한 대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찬탄할 때 합리적이라면 환희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찬탄이 과하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니 더더욱 우쭐거리며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7월 2일

소중한 사람의 몸을 얻었지만, 일생의 대부분을 명성, 재산을 추구하는데만 허비하고 진정한 선심은 아주 적다면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9년 7월 3일

요즘, 보통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승대덕의 환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툭쿠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본인이 툭쿠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뻔뻔하게 중생을 속인다면 이는 망어의 계율을 깨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얻지 못하면 꽃으로 장식된 노란 방석에 앉을 수 없던 것과 같습니다.



2019년 7월 4일

요즘 특하면 이 사람이 툭쿠다 저 사람이 툭쿠다 라고 하는데 사실 툭쿠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를, 혹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가짜 툭쿠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찰은 명예와 이익 등 세간 팔법을 추구하기 위해 가짜 툭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짜 툭쿠들은 본인은 수행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툭쿠’라는 칭호를 받은 후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수행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 켄포는 분명 툭쿠의 환생이지만 본인은 오히려 부인하는데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7월 5일

사실 툴쿠도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부 고승 대덕은 입적하기 전 자신의 후세에 가호를 내립니다. 즉 예언이나 꿈의 방식으로 본래 그의 환생이 아닌 사람을 가호하여 그의 가짜 툴쿠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툴쿠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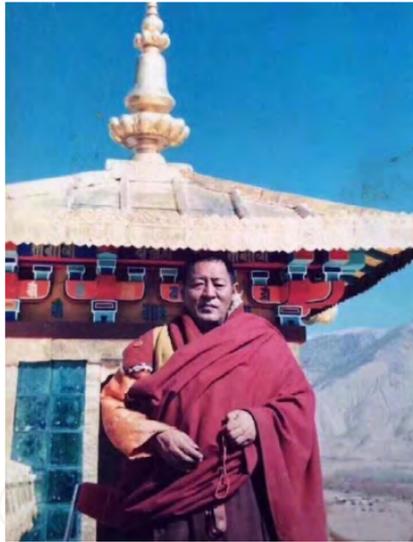
둘째, 일부는 원래 툴쿠가 아니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혹은 심오한 의미를 위해 툴쿠로 인정됩니다.

셋째, 중음(中陰) 상태에서 성취한 툴쿠입니다.

넷째, 악마에 홀린 툴쿠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스승을 살해한 악마가 스승의 모습으로 위장한 후 직접 어떤 사람으로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가호를 내리면서 “이분이 바로 스승이 환생한 툴쿠다”라고 말합니다.

.....

어쨌든 툴쿠가 아닌 사람은 툴쿠로 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 공덕이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장하면 툴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좀 지나친 것입니다!



2019년 7월 6일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자주 툴쿠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툴쿠를 따르기 전에 여러 방면에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선전된 것을 쉽게 믿지 마세요.



2019년 7월 7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레랍링파 툄쿠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낮에는 말 할 것도 없고 밤에 꿈에서조차 제가 대성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열등한 사람이 아직 많으며 심지어 저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툄쿠라는 헛된 명성을 얻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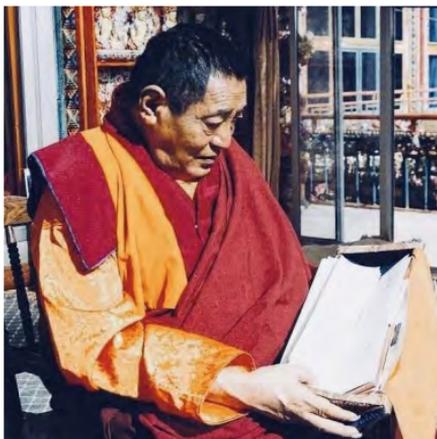
예전의 많은 대덕들은 ‘톨쿠’로 존칭되었지만, 이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공덕을 지켰습니다. 또 일부 대덕들은 ‘톨쿠’라는 호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을 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 번성하는데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톨쿠’라고 여기면서 매일 다른 사람의 칭찬 속에서 득의양양하며, 심지어 매일 술과 담배를 하고 여자를 탐하며, 얻은 돈을 향락에 씁니다..... 탁세의 이런 나쁜 모습을 목격할 때면 참으로 슬픕니다.



2019년 7월 9일

품행이 저열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경과 공양을 받기 위해 뻔뻔스럽게 자신이 ‘툴쿠’라고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툴쿠는 제일 존귀하다! 티베트 불교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툴쿠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진실로 믿고 ‘툴쿠’라면 아무런 공덕이 없어도 그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툴쿠’의 칭호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공덕과 해박한 학식을 가졌더라도, 심지어 선지식의 법상을 모두 갖추었다 라도 조금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내륙 지역에 보편적이며 지금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짜 툴쿠는 티베트 불교에 크나큰 해를 끼쳤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요즘 시대, 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 보이네, 저기 악마가 있네, 귀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홀렸던가 아니면 계율을 깨서 정신이 흐려져 허튼 소리를 합니다. 이는 불교에 크나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법에 관해 잘 알아야 하며 불법이 아닌 그릇된 말을 절대로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자신과 남을 해하고 결국 큰 화가 됩니다.



2019년 7월 11일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대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들이 고고(苦苦), 행고(行苦), 괴고(坏苦)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분노심으로 귀신을 굴복시키거나 신들린 척하며神通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악마를 봤어, 어제 저 귀신을 봤어. 내가 숙박을 푸는 주문을 외웠더니 악마와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어.....” 악마를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하는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가 이미 귀신에 홀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어떤 사람이 대자대비와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온 허공과 대지가 악마로 가득하더라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보현행원품》을 염송하는 사람은 악마와 외도(外道)도 그를 무너트릴 수 없습니다.

설령 진짜 악마를 만나더라도, 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온갖 방법을 다 해 악마를 제거해야겠다고 해서 안 됩니다. 자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자신의 몸이 감로가 되어 그들에게 보시하며 악마가 안락과 만족을 얻는 것을 관상(觀想)합니다. 이렇게 아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마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13일

삼계(三界)에서 가장 큰 악마는 바로 아집입니다. 모든 악마와 귀신은 아집의 '부하'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대마왕과 함께하며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집 이외에 다른 악마는 없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악마도 없다."



2019년 7월 14일

어떤 사람들은 경론을 배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이런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법을 듣고 사유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수행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그런 후에 수행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카 판디타는 “배우고 사유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마치 팔이 없는 사람이 절벽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허황된 망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오늘날 소위 ‘높은 스승’이라 불리는 몇몇 사람들은 불법의 경론은 전혀 모르고 평생 단 한 부의 논전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것을 특히 찬탄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수행 하라고 합니다. 이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며 따르는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전혀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제자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교의 기본 교리와 용어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론을 보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수행을 위주로 하고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는 너무 우매하고 터무니없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룽첸빠 존자님은 “오직 철저하게 법을 듣고 사유한 사람만이 무상의 대원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행의 높은 성취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광범위하게 법을 듣고 사유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저는 불교에서, 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라라 취즈 린포체는 미팜린포체의 뒤를 이은 비범한 대덕이 있습니다. 린포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을 설하거나, 배우고 사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해탈할 수 없다. 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것을 비방한 사람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석녀가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것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2019년 7월 18일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배우고 사유하기 바랍니다. 인(因)이 없이 어떻게 과(果)가 생기겠습니까? 배우지 않고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불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19일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지 않고서 직접 수행하면 완전히 맹목적이며, 이렇게 해서는 불법에 맞는 진실한 견해가 생길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고요한 곳에서 온종일 좌선하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인도 없이 이렇게 5, 6년을 멍하니 앉아 있다고 한들 수행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2019년 7월 20일

제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윤회 열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의 구별은 없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밀법의 계승을 제멋대로 흥얼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입으로는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하지만, 조그마한 좌절만 당해도 금방 질겁하고 불안해합니다. 비록 모든 것에 분별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미색이나 돈을 보면 금세 기쁜 표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한 수행자라고 생각하지만 대자비심, 지혜 측면에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판단하는 표준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2019년 7월 21일

일부 사람들은 윤회는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하면 바로 노발대발하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보통 사람의 악한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인간 세상의 감옥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보다 억만 배 큰 지옥의 고통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진정한 대성취자들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대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를 얻기를 구하지 않고 또 윤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심주를 삼억 번 염송한 것처럼 작은 선을 행하고서는 자신은 이젠 죽어도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불경에서는 무량한 선근이 찰나의 분노로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분노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러므로 자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빈말을 심하게 하는 출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뜻에서 “자네 주의해야 하네. 견문이 깊지 않으니 착실하게 수행해야 하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지 않다면서 “괜찮아요. 저는 매일 경륜을 돌리니 지옥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범부로서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자신은 분명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하며, 즐거움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며, 칭찬을 좋아하고 비난을 싫어하며 온종일 세간팔법에 매여 있으면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일 뿐입니다.



2019년 7월 24일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세간 팔법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면서 늘 자신을 찬탄하고 타인을 비방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세간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세간 팔법에 얽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갈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간 팔법입니다.

그 외에, 자신이 세간 팔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세간 팔법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자신이 견해가 높고 수행의 경지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남을 깔보는 것
이야말로 바로 수행의 독입니다. 본인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파괴
하는 사람을 보면 자비심이 생기는 사람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수행자입
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율을 잘 지킨다고 오만해져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경시하며, 남이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온종일 흠잡는다면 이런 사람
이야말로 틀림없이 ‘계율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2019년 7월 26일(1)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간파하고 세간의 번잡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오랜 시간 깊은 산속에서 고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하합니다. 이는 진정한 출리심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26일(2)

자신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는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를 도처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제 기억에 열여덟 살 때, 덜거 지방에 소갈이라 불리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너무 평범해서 그 누구도 그의 수행 경지가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반에 들 때 뜻밖에도 무지개 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가 대성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7월 27일

모든 것을 청정하게 볼 수 있고 만법에 대해 그 어떤 욕심도 분노도 없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깨달음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혜가 비범하다고 여기고 오만하고 남을 멸시한다면 이런 사람은 수행은 말할 필요도 없고 품격이 높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8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자신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 오만 등 번뇌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번뇌가 마음에 아주 깊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자신이 그리 대단할 게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수행에 더 정진해야 합니다. 수행의 경지가 조금 있다고 절대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2019년 7월 29일

번뇌를 끊으려면 반드시 오랜 시간 스승을 모시고 불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불법을 듣고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2019년 7월 30일

어떤 사람들은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홀로 좌선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행동이 상당히 위험하고 비인(非人)의 방해를 받기 쉽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비록 불경에서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라고 말하지만 전제 조건은 오랜 시간 스승님을 의지해 모든 가르침에 정통하고 일체의 의혹을 해소했을 때 조용한 곳에서 폐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스승에 대한 경건한 공경심도 없으면서 혼자서 속세를 떠나 몇 권의 책만 보고 수행을 시작한다면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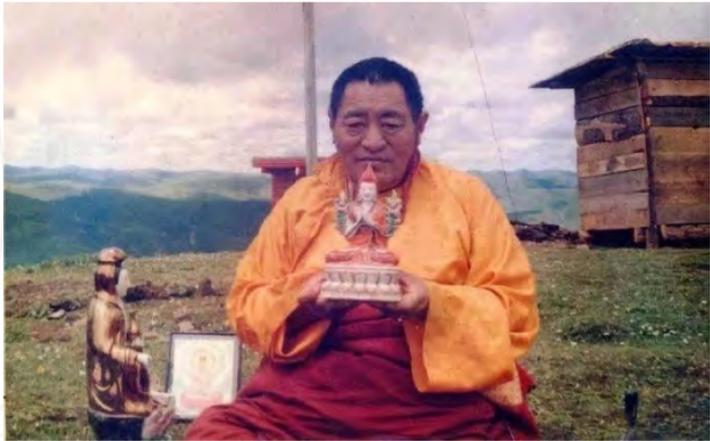
이것은 직메푼촉 린포체님께서 1993년 캐나다에서 하신 강연입니다. 이 가르침을 배우고 또 린포체님께 기도한다면 스승님의 특별한 가호를 얻을 수 있고 지혜, 복보, 안락도 커지게 됩니다.

영어

<http://khenposodargye.org/teachings/khenpos-short-teachings/short-teachings-of-h-h-jigme-phuntsok-rinpoche/>

한국어

http://khenposodargye.org/content/uploads/2020/02/My-Heart-Advice-and-Secret-Pith-Instructions_Korean.pdf



2019년 8월 1일

한 사람이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반드시 스승을 공경해 항상 구루 요가를 수행하며 일심으로 스승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비인(非人)의 침범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대비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대자대비한 보리심이 생긴다면 그 어떤 비인도 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듣고 사유하려 하지 않고, 온종일 눈을 감고 좌선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근기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성취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러한 근기를 가졌는지요?



2019년 8월 2일

초보자가 동굴 등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스승님 앞에서 불법을 열심히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8월 3일

물론, 평생 불법을 듣고 사유만 하고 수행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을 듣고 사유하지 않고서 일생을 맹목적으로 수행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길입니다.



2019년 8월 4일

끝없는 윤회의 고해 속에서 가끔 작은 기쁨이 나타나는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것은 요녀의 미소처럼 믿을 바가 못 됩니다.



2019년 8월 5일

《본사전(本師傳)》의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상인이었을 때 나찰들이 사는 곳에 이르니 수많은 요녀들이 온갖 수단과 욕정으로 그를 유혹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매혹적이나 그 본성은 고통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회 속의 기쁨도 마찬가지로. 기쁨은 순간순간 변하니 번개처럼 무상하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일도 남아있을까? 오늘 건강한 나의 몸이 내일도 여전히 무병할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측하기 어려우니 그야말로 “제법이 번개와 같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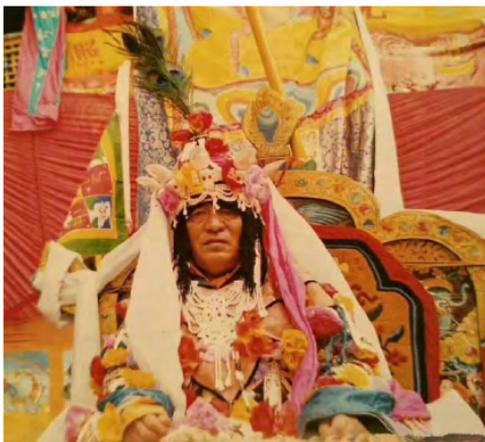
2019년 8월 6일

세간의 모든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천태만상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사실 모두 공이니 우리는 욕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파초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울창하나 한 겹 한 겹 벗겨내면 털끝만큼의 정수도 없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7일

윤회 속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욕심부릴 필요가 없고, 나쁜 일을 당했을 때도 더더욱 성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아무 집착도 하지 마십시오!



2019년 8월 8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안개와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주하면 생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분별심으로 집착하면 백해무익합니다.



2019년 8월 9일

제불보살과 스승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입보살행론》에서 말합니다. “중생들이 기뻐하면 부처도 환희하고,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도 슬퍼한다”

《화엄경》에서도 말합니다. “중생을 기쁘게 하는 자, 일체 여래를 환희하게 한다”



2019년 8월 10일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평가할 때 범부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대덕이 아니면 대덕으로 치켜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진정한 대덕을 함부로 비웃거나 범부의 견해로 멋대로 추측하거나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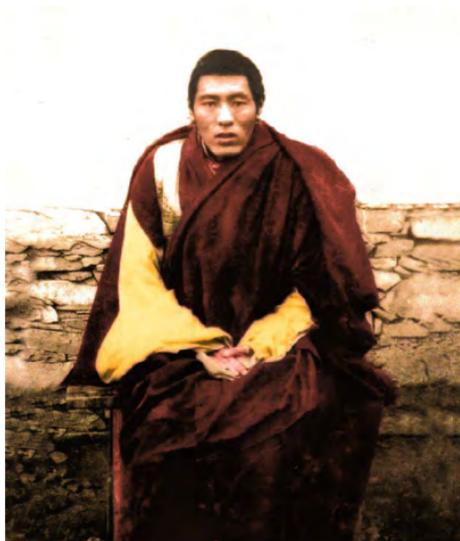
여러분들은 첫째, 심신을 진중하게 하고 둘째, 말할 때는 신중히 하면서 절대 멋대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1일

범부가 수행하는 과정 중 여러 면에서 조건이 너무 좋으면 출리심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너무 고생하면 몸이 불안하고, 몸이 불안하면 수행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론에서는 “양극단에 빠지지 말고 중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우리가 만약 병이 나거나 알 수 없는 해를 당했을 때 절대 성내지 마십시오. 이때가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바꾸어 보는 자타상환법을 수행하는 제일 좋은 기회이며, 역경을 통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연입니다!



2019년 8월 13일

신분의 높고 낮음,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격은 관찰은 것입니다.



2019년 8월 14일

타인의 과실을 목격할 때 내 마음은 청정한지 거듭 살펴봐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업을 짓게 됩니다.



2019년 8월 15일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나 언어 측면의 계율을 중시하면서 외적으로 적절
하지만 신경을 쓰고 마음속 생각은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얼굴과 몸만 씻
고 마음의 청결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인간으로 살면서 마음의 수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으로 가득 찬 곳에 가서 그 어떤 보물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19년 8월 17일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길에 당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삼보의 가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 중에 삼보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19년 8월 18일

우리는 스승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스승님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불법의 생명과 핵심은 바로 자비심(慈悲心)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심(慈心)은 중생들이 즐거움을 기원하는 것이고, 비심(悲心)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과학과 불교는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키고, 불교는 인류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면서 마음의 우매함을 제거합니다.

만약 불교가 없이 물질적인 향락만 추구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2019년 8월 21일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좁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아(我)’가 없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만약 모두가 자신의 선량하고 인자한 마음을 승화하여 진정으로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다면 인류사회는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세계는 척박한 황야가 될 것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지금 우리 스승과 제자 모두는 다음을 깊이 사유하세요.

얻기 어려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을 이미 만났고, 더욱이 듣기 어려운 정법을 듣고 있고 또 정법의 정수인 금강승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얻었을 때, 진실한 가르침을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수행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정법을 설법하고 이를 듣는 공덕은 세속의 선법 중 그 어느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설법 시작하기 전에 스승과 본존에게 정례하는 것을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설법 후 소그룹 토론 등에서도 먼저 정례하는 구절을 염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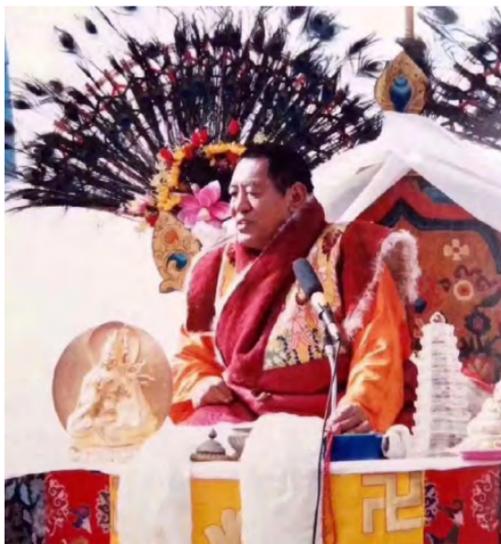
2019년 8월 24일

파탈 린포체께서는 “상등 수행자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보리심을 내야 하고, 중등 수행자는 법문을 알리는 소리 소리를 듣고 보리심을 내야 하며, 하등 수행자는 스승이 일깨워 줄 때 최대한 보리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사님들도 법을 전할 때 청중들이 보리심을 낼 수 있도록 일깨워 줘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2019년 8월 25일

상등의 지혜를 가진 수행자에게, 보살도를 통해 성불하는 유일한 선교방편이 바로 이 보물과 같이 소중한 보리심입니다. 《입보살행론(入菩薩行論)》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검은 구름이 뒤덮인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찰나의 번개가 순식간에 대지를 환히 비추듯, 부처님의 위덕력은 중생의 지혜를 일깨워 복덕을 쌓는 수행을 하게 한다.”



2019년 8월 26일

보물과 같이 소중한 보리심은 윤회와 열반의 모든 묘한 것의 원천이고, 모든 이로움과 즐거움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 보리심만 있으면 윤회 속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일체의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자량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비하신 제불보살들이 수 겁 동안 관찰하고 분석해 얻은 결론으로, 그 어떤 것의 공덕도 보리심의 공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2019년 8월 27일

이처럼 소중한 보리심은 마음에 한 번이라도 생기다면 불자나 보살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산띠데바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감옥과 같은 생사의 윤회는 유정중생에게 고통을 가져오네, 찰나의 보리심이라도 낸다면, 불자의 이름을 얻고, 사람과 천인의 존경을 받는다네”



2019년 8월 28일

보리심이 없이 선을 행하면, 회향하지 않거나 회향을 잘못하는 등 네 가지 원인 때문에 그 공덕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심이 있으면, 아주 미미한 선을 행하더라도 윤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안락과 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성불할 때까지 선근은 끝없이 계속 커집니다.



2019년 8월 29일

마음속에 보물과 같이 소중한 보리심이 있다면 설령 죽은 후 바로 무간지옥에 가는 과보를 언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과보를 깨끗이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보가 아주 조금 남아 있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실타래가 땅에 떨어져 튕겨 올라오는 아주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산띠데바께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중죄를 짓더라도, 지혜로운 자를 통해 그 악한 과보를 없앨 수 있다. 만약 중죄에서 해탈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따르지 않겠는가? 보리심은 온 세상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처럼, 찰나에 모든 중죄를 파괴할 수 있다. 마치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이 보리심의 이익은 무한하다고 말씀한 것과 같다.”



2019년 8월 30일

보물과 같이 소중한 보리심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덕의 차이를 알고 의뢰에 따라 마음속에 보살계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보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선근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깁니다.

이 이치에 관해 《입보살행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심이 생길 때부터, 잠을 자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 등 수행하지 않을 때도, 복덕은 끊임 없이 생기고,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라”



2019년 8월 31일

여러분들은 가축과 유기견들을 돌로 때리지 마세요!

작년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원래 심장병이 있어서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가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때리는 것은 저를 돌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1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개를 때리면 그것은 나를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용맹한 듯 큰 돌로 사정없이 개를 때리는데 정말 참기 힘듭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를 때릴 때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개들을 지켜주는 것도 저의 책임이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개를 때리더라도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악도의 중생은 늘 고통을 받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를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중생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늙은 개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탁악세의 중생이 업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업력으로 인해 받은 고통이 정말 무섭습니다. 목축지에서 구매된 후 도살장에 오기까지 아래위 입술이 못으로 고정되어 차에 실려 옵니다. 씹어서 무게가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도살장에 도착 후 그들이 겪는 고통은 시간만 짧다뿐이지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만 해도 심장병이 재발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 9월 2일

악업 중 제일 큰 악업은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지은 악업으로 대부분은 금세에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금세에 받지 않더라도 사후에 즉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삼보에 아주 작은 공양을 하더라도 매우 큰 복덕을 쌓게 됩니다.

특히 불보, 법보에 공양하는 것보다 승보에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큼니다. 삼보의 총합이 승보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3일

불상이나 사리탑 등에 공양하면 이로 인해 해탈 관련 공덕은 있으나 세속의 복보(福報)는 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보에 공양하면 해탈의 공덕 뿐만 아니라 세속의 복보도 있습니다. 설령 아주 작은 재물이나 한 입의 음식을 공양하더라도 이번 생에 복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복보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할 때까지 계속 더 커집니다.

승보는 복을 쌓는 원만한 복전(福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공양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공덕과 복보를 얻게 됩니다.



2019년 9월 4일

죽음이라는 것은 무상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며 죽음의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심, 대비심 그리고 대원만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는 윤회에 떠돌지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힘써 부지런히 수행하세요. 누구든 전심전력하여 수행하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경법을 버리는 사법죄(捨法罪)를 짓는다면 해탈의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꼭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죄란 무엇일까요? 보살을 비방하는 것도 사법죄입니다. 보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보살은 출가한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재가의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동물 중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 9월 6일

세상에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외 작은 종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종교 내부적으로 또 종교 간에 서로 충돌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중생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종교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독선에 빠져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9월 7일

불교도로서 어느 종파를 수행하든 자신의 종파에 대해 깊고 굳건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과 인연 있는 법과 인연 있는 본존에 대해 견고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신심만으로는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배운 이론이나 염송한 의궤와 주문, 수행의 순서, 비결의 운용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8일

출가자든 재가의 거사든 온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원을 참배하고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아무 소득도 없고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되도록 한가지 법문을 깊이 있게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2019년 9월 9일

일반적으로, 불보살의 대비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들이 수행 중 낸 발심과 발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파드마삼바바님께 한 번 기도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또한 파드마삼바바님은 지수화풍 등 재해를 물리치는 위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파드마삼바바의 7구절 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렬한 신심과 신실한 공경심을 갖고 파드마삼바바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설상 지역과 제일 인연이 깊고 원만한 스승은 파드마삼바바님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저의 경우, 이번 생에 님마파의 가르침을 받고 광명한 금강승의 법을 배우고 수행했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스승의 가피가 제 마음속에 녹아들었고 대원만법의 깊은 뜻을 깨달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드마삼바바 님 등 전승 스승의 은덕 때문이고 특히 스승 미팜 린포체께서 하사하신 은덕입니다. 그러니 저를 통해 가피를 받고자 한다면 미팜 린포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종파 간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스승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가피를 원만히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4구절 가르침만 보아도 신심과 대비심, 깨달음의 경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불법의 내용 중 제일 어려운 점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효과는 7~8일간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미팜 린포체께 정성껏 기도하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2일

근본 스승을 진정한 부처님이라 믿고, 계율과 서언을 최대한 잘 지키고, 대원만법을 꾸준히 정진 수행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면 반드시 본인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지금은 견해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복보가 얇은 수행자들은 수행하는 법이 깊을수록 신심이 점점 약해집니다. 만약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고, 표면적으로만 듣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변론하는 방법으로 쉽게 깊은 법의 핵심을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팜 린포체께서 “불법을 백 년 동안 열심히 사유하더라도, 전생에 오랫동안 수행해 이번 생 반드시 성취를 얻게 될 인이 없다면,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정진 수행하더라도 불법에 통달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이제 시작한 초학자들은 깊은 법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9월 14일

이전에 사카파, 겐룩파, 까규파, 닝마파의 고승대덕들 간에 아주 훌륭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변론의 필요성을 모르고 종파 간의 관점이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파의 관점이 결과 속처럼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법을 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끝없는 악도에 떠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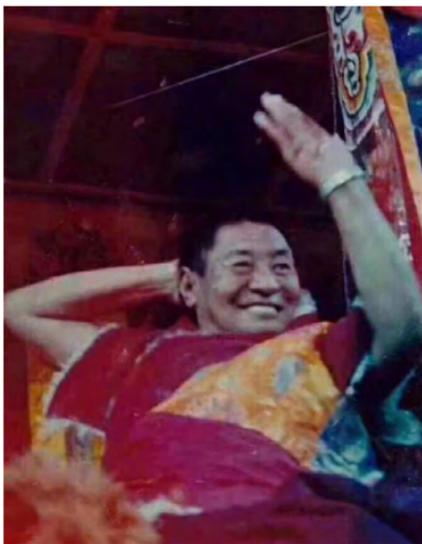
2019년 9월 15일

사실 티베트 설상 지역의 모든 불법은 전부 대승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관학의 측면에서, 모두 다 중관 응성파(應成派)로 분류되며 “나는 중관 자속파(自續派)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종의 측면에서는 전부 다 무상 속부(續部)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파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 떼들은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에서 의미 없는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악을 끊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선, 절하고 탑을 돌고 자량을 쌓아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내고, 그런 후 일심전력으로 생기차제, 원만자제 등의 법의 핵심을 정진 수행하세요.



2019년 9월 17일

어떤 종파에 대해 탐욕과 성내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또 정법을 버리는 죄를 짓게 되며 특히 금강승의 제6조 근본 계율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승려와 신도들은 종파 간에 화합 단결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 인연 있는 본존을 공경히 모시고, 다른 종파에 대해 성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지금 이 세상에는 크게는 국가 간 민족 간에, 작게는 가족 간에 욕심과 성냄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시하세요.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 가족과 가족 간의 분쟁을 멈추고 세계의 화합과 안녕을 창조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윗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지금부터 우리는 “제일 높은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는 기도문”을 수행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발원합시다. “후에 아미타불을 직접 만나고, 성불하는 수기(授記)를 얻고, 광대한 소원을 원만히 이루며, 중생을 제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면서 끝없는 미래까지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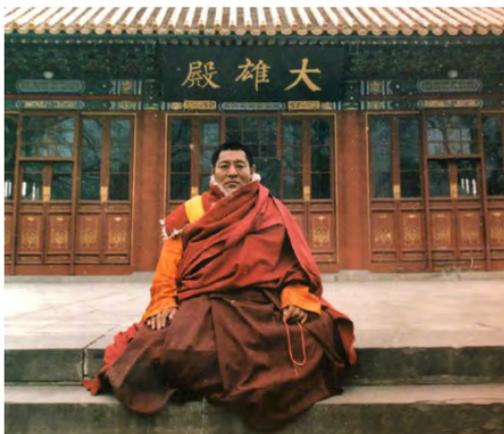
2019년 9월 21일

각각의 종교 종파와 다투지 않고, 각각의 국가 민족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불학원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 비밀로 할 필요 없이 서로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의 계승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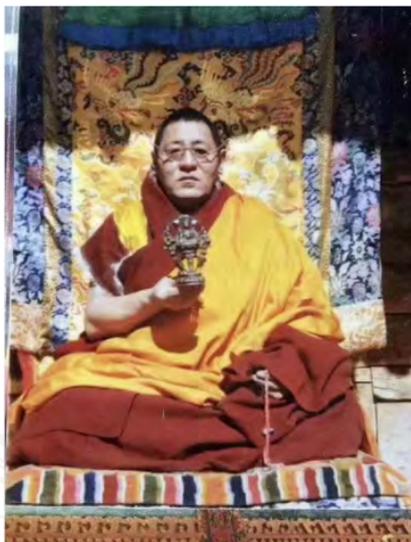
2019년 9월 22일

우리 모두는, 가을의 꽃처럼 얼마나 머무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곧 떠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불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을 때, 정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불경은 광대하고, 가르침은 수없이 많고, 배워야 할 지식은 끝이 없는 반면 속세의 인생은 짧고 외부의 인연은 겹겹이 많고 거스르는 연은 들끓으니 이런 상황에서 모든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아 착실히 수행해가야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상등의 수행자는 광명 대원만법으로 법신의 과위인 무지개몸을 얻고, 중등의 수행자는 보살도의 모든 법으로 10지의 단계를 거쳐 성불하며, 하등의 수행자는 출리심과 관련된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윤회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순조로운 연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 ‘광대한 선법이든 미미한 선법이든 나는 한평생 온 힘을 다해 수행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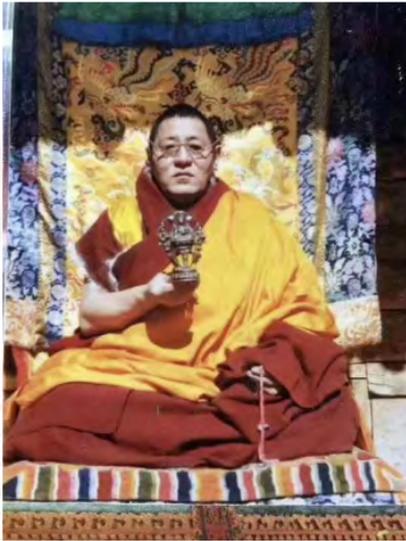
우리가 무시이래로 지은 모든 죄, 특히 서약을 갠 죄를 없애는 제일 뛰어난 방법은 금강살타 심주입니다. 《금강수위맹속(金剛手威猛續)》에는 “이 심주를 십만 번 염송하면 제일 중요한 서약을 갠 죄도 청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극락왕생을 방해하는 정법을 버린 죄와 무간(無間)죄는 이번 생에 청정하게 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의 남녀 신도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심주를 염송하는 수량은, 대원만 속부에서는 10만 번이라고 말하지만, 오탁약세인 지금은 40만 번을 염송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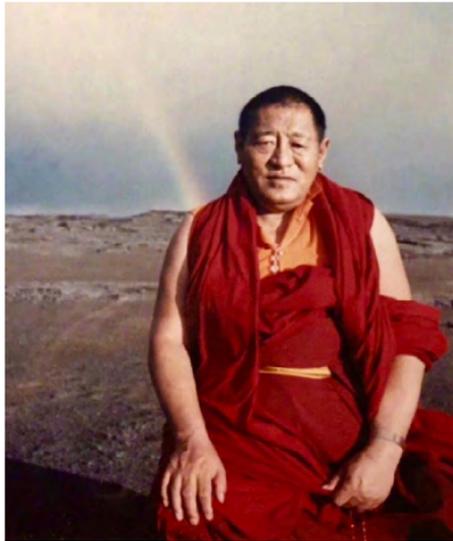
2019년 9월 27일

심주를 염송할 때는 발음을 명확히 하고 일심으로 관하는 대상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상등의 수행자는 생기차제, 원만차제의 경지에 머무르며 염송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4가지 번뇌를 없애는 힘으로 염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염송하면 자성죄(自性罪)와 별해탈계, 보살계, 밀종의 계율을 깨는 일체의 죄, 또 정법을 버린 죄, 무간죄, 공양받은 재물을 옳지 않게 쓴 죄 등을 하나도 남김없이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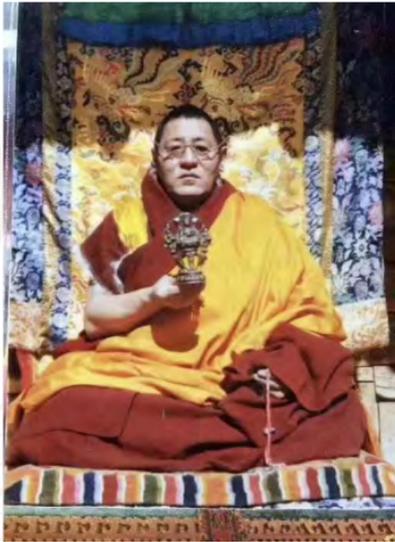
제가 워저 지역에서 발견한 깊고 심오한 테르마[숨겨진 보물]-《금강살타 의궤(金剛薩埵儀軌)》에서 언급하기를 “발견 지역 근처에서 수행하면 더 쉽게 성취할 수 있고, 한족 지역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널리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족 지역 신도들에게 금강살타 심주를 영송하도록 권한다면 다른 법문보다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신 길한 날에 우리 불학원에서도 이 지장법회를 여는데 보현행원법회라고도 합니다. 이 법회는 주로 지장법을 수행합니다. 사실 보현행원품의 수행은 불학원의 4대 법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장법회와 금강살타법회는 기본적으로 재가의 신도들을 위해 여는 것입니다. 지장법회는 농사의 풍년과 만사형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께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지장보살께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큼니다. 이는 《지장찬(地藏贊)》에도 언급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크게는 성불하기 위해 극락왕생을 원하고, 작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넉넉하고 운수대통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지장보살께 기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장보살께 기도하면 이번 생에 무병장수하고 부를 누리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후에는 즉시 자기와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과 함께 극락 세계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지장보살께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반드시 성문이나 연각, 보살, 붓다의 무상한 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만 개의 여의보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주입니다. 만약 보통의 여의보주에 기도하면 세간의 재부는 얻을 수 있으나 출세간의 계, 정, 혜 등 공덕은 얻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아미타불의 발원력으로 우리는 극락왕생하는 인(因)을 쉽게 만들고 또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공덕과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도들을 위해 극락법회를 엽니다.

특히 계율을 지닌 승단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자량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수승한 기회이며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지름길 중의 지름길입니다.



2019년 10월 3일

활불이라면 어릴 때부터 신도로부터 공양받은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밀라레빠 존자님은 “타당치 않게 재물을 향유하면 칼이 되고, 해탈의 명줄을 자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기차제, 원만 차제의 수행 경지를 가진 보살만이 이러한 재물을 문제없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우리는 이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계율을 지키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섰거나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부대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출가자나 불도를 닦는 수행자로서, 위로는 고등 동물인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아래로는 개미와 같은 하등 동물의 생명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다른 생명을 해치면 승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힘써 실천해가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5일

항상 남을 이롭게 하고 마음이 선량한 사람에게는 길운도 재부도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9년 10월 6일

착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처럼 신심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삼보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착한 마음이 생겼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실천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누구나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툴 린포체는 “탐진치가 있는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따라서 탐진치를 갖게 되고, 신심과 자비심이 있는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신심, 자비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초지 보살의 경지를 얻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귀는 친구에게 달려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도시에 살든 깊은 산 사찰 등 어느 곳에 살든 언제 어디서나 악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승려로서 장사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당신도 상인이 될 수가 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당신도 지식인이 될 수가 있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당신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거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활한 자, 도둑질하는 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면 그도 간사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출가자는 원래는 고상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더니 완전히 잘못되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19년 10월 9일

이전에 악한 사람과 사귀었더라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현명하고 선량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미팜 린포체께서는 “모든 산란함을 끊어라, 끊기 어렵다면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과 사귀어라, 그들이 당신에게 묘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이 아무리 하더라도 산란함을 없앨 수 없다면 공덕이 있는 친구와 사귀어라, 그들은 공덕으로 당신을 물들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위아래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원수에게 화를 안 내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등불의 불과 심지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
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불교단체 정돈 기준 통보》에서 말하듯이 불교의 기초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불교의 핵심은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데 정진하는 것이며, 불교의 결과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은 이 세 가지 요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붓다가 한자리에 모여도 이 이상 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불법이 번창하는 티베트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삼보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삼보에 의지하면 이번 생도 후세도 다 즐거울 것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여러분들이 30위안을 써 경륜을 구매하면 돈은 30위안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한 선근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서 가 경륜을 구입하세요! 어서 가 경륜을 구입하세요! 착한 아이들아, 큰 발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륜을 구입해야 하고, 경륜을 돌려야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륜은 가로로 흔들어서는 안 되고, 침대 위에 던져서도 안 되며, 경륜 위로 넘고 지나가도 안 됩니다. 평소 청정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경륜이 바로 진정한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현재 오명불학원에서 염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공헌일 것 같습니다. 염주를 지니면 관세음보살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파툴 린포체는 말씀하셨습니다. “제불보살의 총합이 관세음보살이고, 밀법 심주의 총합이 관세음보살 심주(오마니베메훬)이며,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총합이 보리심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에서 오마니베메훬을 염송하세요.” 관세음 심주를 염송하세요! 관세음 심주를 염송하세요! 오마니베메훬.



2019년 10월 16일

티베트 설상 지역은 본래 관세음보살의 불국토입니다. 설령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손에 염주를 들고 관세음보살 심주는 염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금강살타 심주, 문수보살 심주, 파드마삼바바 심주를 염송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본존의 본체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등을 공양하는 공덕은 실로 불가사의하며 모든 공양의 왕입니다. 특히 등이 모든 방향을 비추는 인연으로 마음속 모든 번뇌의 근본인 무명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무명을 몰아내는 데 등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까담
파 선지식인 보뒤아, 지네와, 푸홍와 등 모든 전승 고승대덕들은 베개 위
쪽에 불상을 차려 놓고 불상 앞에 물과 등을 항상 공양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티베트족은 자체의 특색이 있습니다. 법왕 송첸감포로부터 시작해 티송 데첸, 티레바잔 3대 왕이 집권한 이래 티베트족은 손에는 염주와 경륜을 들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심주를 염송하고, 주 음식으로는 짬바를 먹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비록 폭넓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손에 염주와 경륜을 들고, 관세음보살
심주를 염송하면 청정한 티베트 불교 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우리가 한 가지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물 한 방울 같이 작은 선행을 하더라도 모두 다 일심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강렬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갈망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저는 일찍이 한족 지역 오탈산 문수보살 앞에서 발원했습니다. 가장 좋기는, 제가 전 세계 일체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것이고, 중간 정도 좋기는 중국의 대다수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것이며, 이것도 실현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티베트 설상 지역의 대다수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저의 소망은 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중생이 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더라도 대다수 중생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어떤 사람은 도술천으로 왕생하기를 발원했다가 파드마삼바바 불국토로, 또 부동불 불국토로, 관세음보살 불국토로 왕생하기를 발원하며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임종할 때 마음은 마치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칠 때와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고 파드마삼바바께 기도했다가, 타라 보살께 기도했다가, 또 스승님께 기도했다가, 부처님께 기도했다가 마치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목표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는 아주 두렵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정토 법문을 수행한다’에서의 정토는 우리의 자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이미 그의 정토에 진수성찬을 풍성하게 차려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심으로 극락왕생을 갈망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6일

파드마삼바바와 스승 미팜 린포체는 제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저와 인연을 맺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200여 년 전 도 켄체(Do Khyentse) 스승은, 아래로는 아라다저 산산, 위로는 단젠 산산과 텅어 나무신이 있는 곳에 라롱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4개의 승단과 제가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예언하셨습니다.

또 레라오랑바 대사는, 쯤메치레라는 곳에 직메폰축이란 사람이, 아버지 이름은 반마, 어머니 이름은 예초이며 닭의 해에 태어나고, 몸, 언어, 마음 면에서 많은 상서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설법은 말법 시대의 쇠퇴를 없애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들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신 겁니다. 만약 제가 태어난 이후라면 스승님들께서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예언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이로움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이니 기쁜 마음으로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세요.

지금 이 법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싸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극락세계로 왕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저도 이처럼 노력하는 것은 이 예언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며,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100만 번 염송하면 생을 마감하는 즉시 극락세계로 왕생할 것입니다. 불보살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니 이에 대해 의심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당신들은 극락세계로 왕생하겠다고 발원하고, 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당신들은 살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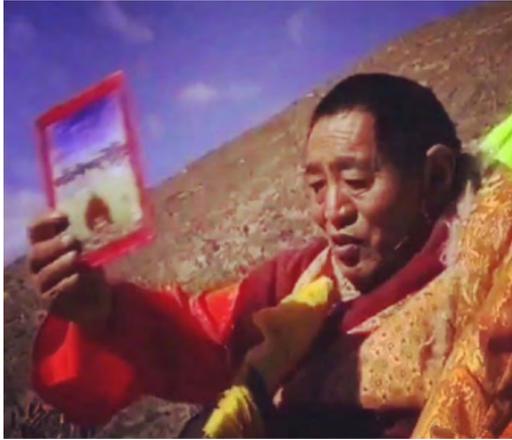
당신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선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든 불법을 포함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이번이 마지막 모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시 보기를 기대하며, 이번 생에 다시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하지만, 곧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환생한 활불을 찾아야 해”라고 하며 49일이 되기 전, 모태에서 9개월 10일이 차기 전인 활불을 찾아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바로 환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저는 늘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아미타불을 직접 보고, 그의 설법을 듣고, 아미타불이 연꽃 꽃잎 같은 오른손을 저의 정수리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수기(授記)를 하사하시면 오안육통(五眼六通)을 저절로 얻을 것입니다. 만약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나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시방세계 삼계 안에 두루 다니며, 닦아 얻은 복과 지혜 끝이 없고, 선정 지혜 모든 방편 해탈법으로, 그지없는 공덕의 창고를 얻었사오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면 지혜, 방편, 정진, 삼매,神通력 등의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나는 대비심으로 온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티베트 다강의 하류인 나의 고향 서다 지방은 특히 그렇다. 앞으로 내가 그 어떤 청정 불국토에 왕생하더라도 내가 살던 이 땅과 절의 승려, 신도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자신의 길을 잃지 말고, 타인의 마음을 방해하지 마라.



2019년 11월 1일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행의 진정한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별해탈계를 기초로 하고, 다음은 보살도, 궁극에는 대원만이다. 이런 비
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년 11월 2일

별해탈계에 대해 말하자면, 바다와 같은 울전의 핵심이 모여 있는 가르침이 《계율화만론(戒律花鬘論)》입니다. 이는 《근본율(根本律)》보다 훨씬 뛰어나며 5가지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보살의 가르침 중 비교 불가의 경전은 《입보살행론(入菩薩行論)》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대원만법의 아티 요가(Ati Yoga)에서 모든 비결의 정수가 바로 《상사심
수여의보(上師心髓如意寶)》입니다.



2019년 11월 5일

누구든지 조금의 공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덕이 설령 크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그의 장점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덕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높이다 보면 자신의 공덕도 점점 더 커집니다.



2019년 11월 6일

요새 어떤 사람들은 스승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보에 신심이 없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과 왕래하면 그 손해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2019년 11월 7일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믿음직하며, 삼보에 경건한 공경심이 있고, 인과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호법신도 항상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길운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근도 커집니다. 이번 생과 내세의 많은 일을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법문을 수행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번뇌 분별심이 너무 맹렬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9일

지금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스승을 따를 때 그의 공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과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하고, 나중에 또 자신의 스승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잘 관찰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0일

대원만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섬기려면 자신이 먼저 스승은 이미 대원만을 깨달았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스승이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 어찌 제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전승은 황금으로 된 실처럼 서언을 깨는 녹에 오염되지 않았고, 스승은 그의 전승 스승, 역대 전승 스승에게도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외에 스승은 이번 생의 명예나 이익 등에 큰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즉 세속법에 대해 탐욕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대원만법의 교의에 정통하고 이치와 법에 맞게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원만법의 속부와 논전에 따르면, 스승은 반드시 현종과 밀종의 일체 경론에 정통해야 합니다. 설령 현종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원만법의 108가지 비결은 정통해야 합니다. 대원만법에서 번뇌를 어떤 때는 지혜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경전에 정통하지 않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반드시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제자를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교리에 통달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수행한다면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인간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꼭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이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각자는 자신의 현생과 미래에 모두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아직 불법의 광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다투어 선을 행해야지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유리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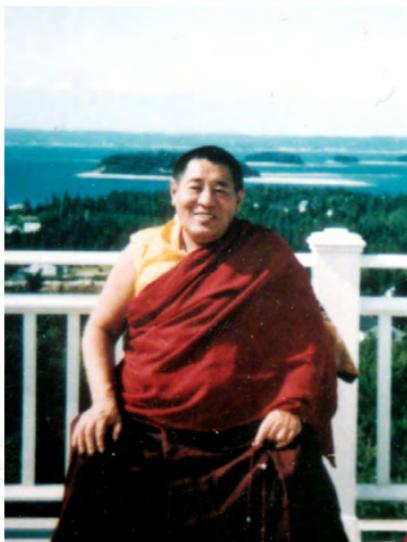
2019년 11월 15일

대원만법을 수행하는 스승 중에 자주 신통력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가끔 신통력을 보여주는 스승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승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는 대성취자입니다. 이 외에 스승이 본존을 친히 만났는지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스승의 홍법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주 광대하다면 본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승이 대성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원만법의 종파에 따르면, 자신의 스승이 대성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신통력이 있고, 본존을 친히 만나고, 중생을 광범위하게 이롭게 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면 대성취자라고 미팜 린포체는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오명불학원의 켄포들이 대성취자인지를 판단할 때도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일부 가짜 성취자는 거짓말로 위장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 전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켄포들은 대원만법 수행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대원만법은 조금만 정진 수행해도 뛰어난 감응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해서 수행한다면 성취한 스승의 공덕과 지혜를 자연스레 다 얻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17일

대성취자 룡첸빠 존자는 대원만법이 갈수록 흥성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대성취자 미팜 린포체는 말법시대 세상이 어두울수록 대원만법의 빛은 더욱더 강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생들의 탐, 진, 치 번뇌가 심해질수록 대원만법의 가호도 더욱더 커집니다.



2019년 11월 18일

스승님과 대원만법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대원만법을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다 이번 생의 세간법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사람은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중생의 근기와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과 행위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전수하면 비록 극소수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전승 스승, 본존과 호법신을 기쁘게 하면 흥법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모두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일부 사람들이 수행 중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데 이는 성취자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해 성취한 스승을 기쁘게 하면 자신의 공덕도 점차 원만해지고 이번 생과 내세 모두 행복과 안락 속에서 보낼 것입니다. 또 본인도 놀랄 정도로 흥법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주 광대해집니다. 나아가 이것이 대원만법의 뛰어난 특징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며, 대원만법을 인간에게 처음 전하신 조사(祖師) 가람 도르제(Garab Dorje)의 은덕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수행이 좋은 일부 노인들은 자신이 청정 불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에게 젊은이가 되겠냐고 하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수행이 반드시 순조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들은 젊은이로 바뀌는 것을 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수행이 좋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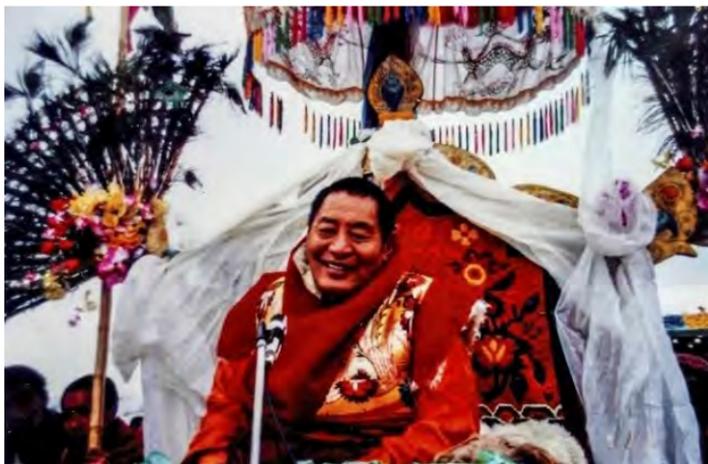
2019년 11월 22일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도 일종의 분별심이고, 나아가 상(相)이 없는 원만차제도 일종의 분별심이니 분별심으로 사유하고 수행해서는 분별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의미에서는 생기, 원만차제도 제일 뛰어난 법문이 아닙니다. 사유하는 것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모두 분별심이기 때문에 최후에는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2019년 11월 23일

대원만법은 모든 대승의 수행법을 포함하므로 이를 통해 모든 분별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법 시대에 분별심으로만 사유하고 수행하면 여러 꿈같은 분별심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제일 뛰어난 대원만법 외에 다른 어떤 법문도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우리가 대원만법을 통해 본유의 지혜를 정진 수행하면 모든 분별심과 고통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때 본존과 공행모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보입니다. 이것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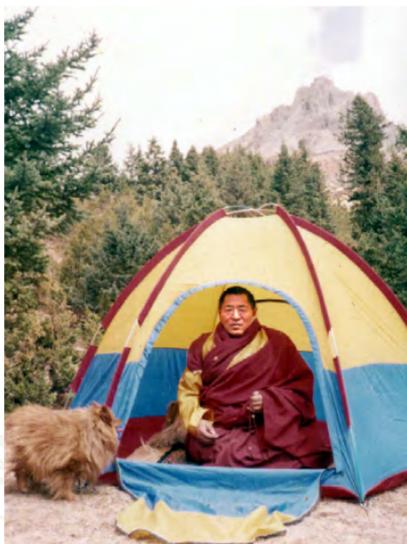
2019년 11월 25일

대원만법을 수행할 때 염송을 해도 안 해도 다 괜찮습니다. 어떤 스승은 주문을 염송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스승은 염송하면서 안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염송한다면 마음의 본성에 안주하면서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나 한다면 본성에 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염송하고 수행하며 항상 스승님과 본존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염송하고 수행할 때 본성에 안주하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감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항상 마음의 본성에 안주하는 것은, 본존의 법을 수행하거나 심주를 염송하는 등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모든 수행법을 포함합니다.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땅을 파고 풀을 베는 등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언제나 대원만의 견해에 안주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수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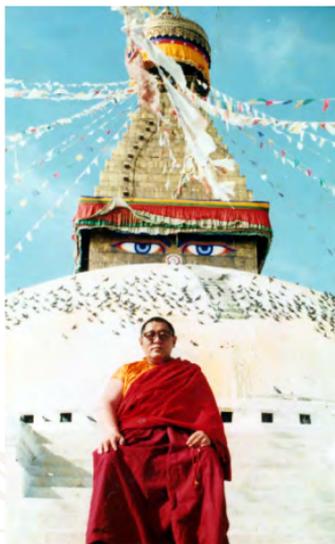
2019년 11월 27일

꿈의 끝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끝없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마음의 본성은 바로 공(空)과 락(樂)이 둘이 아니며, 정해진 것이 없고, 인지할 것도 없으며, 광명이 두루 비치며 불가사의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진정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청정한 불국토요 청정한 본존일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삼유 윤회와 삼악도의 여러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30일

무시이래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예전처럼 그럴다면 똑같이 삼계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2019년 12월 1일

꿈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윤회 속의 여러 재물에 집착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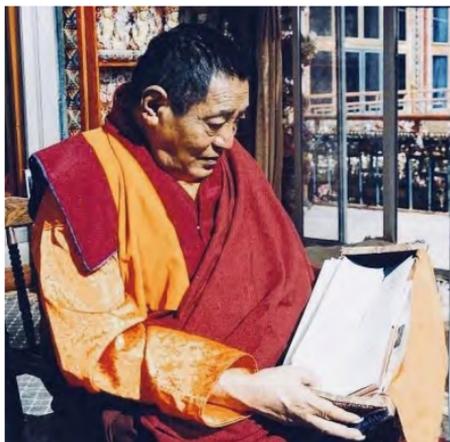
2019년 12월 2일

대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삼근본(스승, 본존, 호법신)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큰 지혜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3가지 맹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맹세가 모든 불법 즉 현종과 밀종의 가르침의 핵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일체 법의 본성의 측면에서는 취사선택이 없습니다. 이 상태는 최고 즐거움의 법계(法界)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주하면 이 상태는 스스로 나타나나 분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물은 맑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꽤 오랜 시간 정진하여 수행했지만, 수행의 효과는 없고 삼근본의 가피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삼근본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황막한 광야처럼 선근의 씨를 뿌리지 않아 싹이 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조용한 곳을 찾아 오래도록 수련을 했지만, 무시이래 지은 악업이 무르익을 때는 자신의 마음 상속도 수행의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행해도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린 후에야 수행의 효과가 비로소 나타날 것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심주에는 분명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미 많은 심주를 정진해서 염송했는데 뚜렷한 효과가 없다면 달리 탓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자신의 삼매의 힘이 많이 부족하거나 금강승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서 혹은 금생의 업력이 너무 무거워서 등의 원인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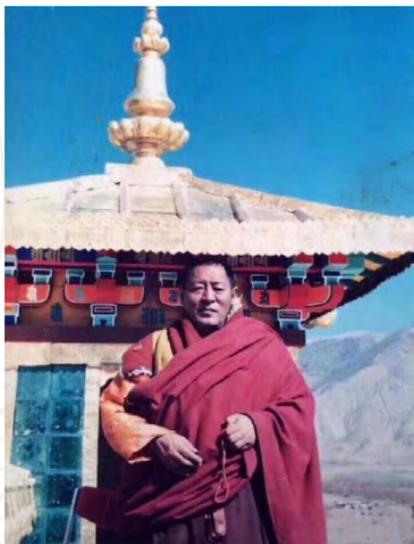
2019년 12월 7일

분별심이 아주 심하더라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별심의 극히 거짓된 가면을 벗겨 버리고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탐욕을 끊고 청정한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8일

수행하는 법문이 자비스런 모습의 본존이든 분노한 모습의 본존이든 사실 법계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본존은 다 지혜의 본체이며, 모든 심주는 만트라성의 본성이며, 모든 수행의 길은 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본존을 수행하든 사실은 다른 본존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불법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청정한 견해는 세간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인(因)입니다. 특히 인과를 믿는 정견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 정견이 없다면 삼선도의 안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은 금생과 내세가 모두 원만해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즉, 자신의 스승을 위주로 한 삼보에 대한 확고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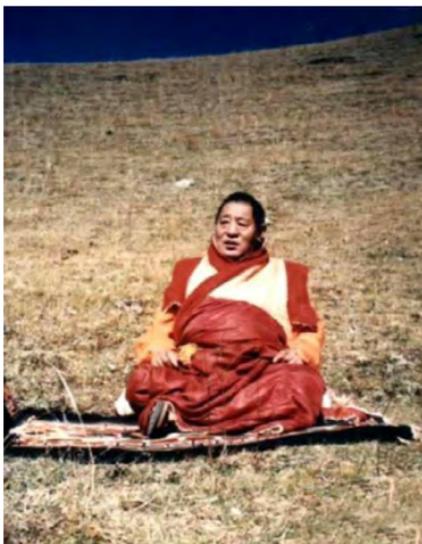
2019년 12월 10일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지은 많은 악업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이에 제불보살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려 하고, 이후로는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발원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든 인간계와 천상계의 안락을 누리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이런 비참한 과보가 성숙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믿음과 정견의 중요성에 관해 붓다는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만 구비된다면 분명 악도로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공덕이 이로 인해 늘어납니다. 따라서 믿음과 정견은 우리의 가장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친척, 친구는 구름이나 연기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므로 영원히 믿을 만한 의지처가 못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티끌만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우리의 수명은 번개와 같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금생의 모든 것은 확실히 무상합니다. 노인은 이런 이치를 비교적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젊은이들도 자신의 미래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수명은 확실히 아주 짧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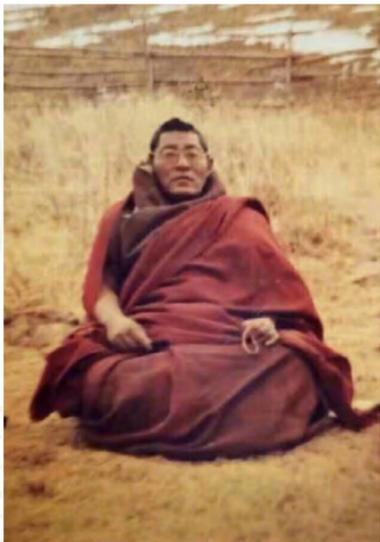
2019년 12월 13일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몸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 몸을 가장 아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보살펴도 마지막에는 이 몸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데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모든 세간법을 잘라내고 내세를 위하여 진정 자신에게 유익한 불법을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4일

부귀의 무상함은 하늘의 먹구름과 같고, 높은 지위의 무상함은 산속의 안개와 같습니다. 노인들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전에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아주 불쌍한 처지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러한 대지에서의 변화는 정말 큼니다. 마치 산속의 안개와 하늘의 먹구름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명성은 빈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용모나 재능, 지혜 등을 찬탄할 때도 메아리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갖 공경을 받는 것도 꿈과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공경할 때도 꿈속에서 공경받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젊은이들이 용모나 재능, 재산 등 방면에서 남보다 조금 뛰어나더라도 거만하지 마세요. 일부 사람들에게 비해 좋을 수 있지만 더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얼굴의 주름이 산속의 오솔길처럼 쭈글쭈글하고 이빨도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처럼 노쇠해집니다. 그 때 가면 당신들도 후회하고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을 때 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금생과 내세가 모두 안락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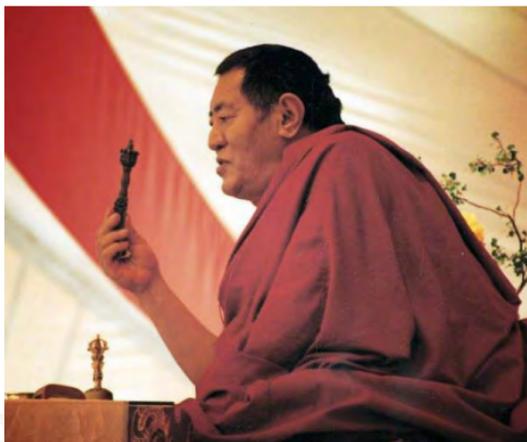
2019년 12월 17일

우리가 죽을 때 명성이나 재산, 지위 등은 티끌만큼도 가져갈 수 없고 전부 인간세상에 두고 본인은 이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성이나 재산, 지위 등 세간법에는 특별히 강렬한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간법은 집착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뒤따릅니다.



2019년 12월 18일

윤회하는 제법의 본성에 대해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즉 모든 중생은 죽은 후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인과 측면에서 보면, 초라한 거지와 높은 명성을 가진 국왕이 죽은 후 중음의 법왕 앞에서는 둘 다 평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생의 안락을 탐하며 많은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12월 19일

중생들은 모두 고통을 벗어나 안락을 얻고 싶어합니다. 이후에 어느 곳,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든지 안락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장구한 안락을 위해 이번 생의 짧은 시간 동안은, 아직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정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팜 린포체의 교언 중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금생은 인(因)이고, 내세는 과(果)이다. 그런데 왜 지금 선업을 쌓으려 하지 않는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을에 수확을 얻고 싶으면 봄에 당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논에 물을 대야 하지 않는가? 모든 중생은 다 자신의 업력을 따라야 하므로 지금 반드시 선업을 지어야 한다.”



2019년 12월 20일

본인은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수행자로 계율만 잘 지키면 다른 수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경전이나 율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의 열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금생과 내세에 진정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최고 대원만 수행법 중의 아디요가(ati yoga)는 팔만사천법문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본래의 근본 지혜는 아디요가의 모든 핵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본래의 근본 지혜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마음의 광명한 본체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불이지혜이고 또한 문수보살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한 본존이 모든 불보살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이 본존은 우리 마음의 참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참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대원만이고 자신의 본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천방지축 날뛰는 원숭이처럼 늘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요한 곳에 가서 정진하여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설령 산란한 마음으로 벽에 걸린 불상을 보아도 그 사람은 점차 해탈할 수 있다.”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심이나 혼란한 마음으로 불상을 보면 비록 잠시 악도에 떨어지지만 이미 붓다와 인연을 맺었기에 종국에는 점차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상에 신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일체 삼세제불의 지혜의 화신은 문수사리보살이고, 삼세제불의 대표와 총합은 파드마삼바바입니다. 우리는 파드마삼바바, 문수보살과 스승님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합니다. 항상 이렇게 관하면, 성불할 때까지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대비심으로 가호하시고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그 어떤 제불보살께 기도해도 지혜가 늘어납니다. 특히 가호를 받고 싶으면 스승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수행성취를 이루려면 본존께 기도를 올리며, 흥법사업을 성취하려면 공행모께 기도하고, 수행의 방해를 없애려면 호법신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모든 유위법은 번개처럼 찰나 무상하기에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끝이 없습니다. 전지하신 룡첸빠 존자님께서서는 “자질구레한 세간의 일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마음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자주 사유하면서 모든 것을 환상처럼 꿈처럼 대하다 보면 온 세상이 환상과 같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V화면의 지나가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2019년 12월 28일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끊어내고 평등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세간법과 불법의 공덕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2019년 12월 29일

많은 사람들이 이 청정하지 않고 생로병사가 있는 몸을 항상 씻어주고 공을 들여 단장합니다. 무상한 신체에도 정성을 다해 아끼는데 생생세세 자신을 따라다니는 마음은 왜 여러 공덕으로 더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신체는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마음은 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진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일반인들의 지혜는 그믐날 달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 빛이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점점 더 밝아지듯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혜를 차곡차곡 키워가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좋은 수행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한 곳에서 감로 묘법을 향유하고 있는 불교 방면에 수행이 깊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쌓은 공덕으로 인해 대중의 공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만하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고, 불교에서도 찬탄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비교적 완벽하겠지만 한 가지만 갖추어도 수희찬탄을 받을 만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든 군중 속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든 이 모두 다 상등의 수행자입니다.



표지 디자인 왕제호



ཡི་ཤེ་ཉི་ཤུ་རྩ་དྲུག་པ་པོའི་དཔེ་ཆའི་ནང་དུ་ལམག་ན་དཔེ་ཆ་དེ་ཅི་འདྲར་
བསྐོས་མ་གྲང་ཉེས་པ་མི་འབྲུང་བར་ལམས་དཔལ་ཙུ་རྒྱུད་ལས་ལསྲིངས་ལོ།།

본 책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